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2-3

ISBN 978-89-98568-02-3

대전 쪽방밀집지역거주자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목 차

제 1 편 쪽방거주자 현황 및 욕구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3
제2장 이론적 논의	5
1. 선행연구 검토	5
2. 쪽방의 실태	6
제3장 연구방법	9
1. 조사대상자	9
2. 조사방법	9
제4장 조사결과	11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1
2. 거주현황	13
3. 거주지 유형 및 편의시설	16
4. 건강과 장애	19
5. 경제적여건	24
6. 쪽방거주자의 서비스 욕구	30
제5장 결론	31
참고문헌	34
부록	36

제 2 편 쪽방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의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제1장 문제제기	43
제2장 문헌검토	45
1. 쪽방지역에 대한 연구	45
2. 쪽방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의 삶	45

제3장 연구방법	47
1. 근거이론	47
2. 연구 참여자	47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48
4.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이슈	49
제4장 연구결과	50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50
2. 근거자료에 나타난 개념과 개념의 범주화	50
3.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분석	52
4. 핵심범주와 이야기 윤곽	61
5. 쪽방 장기거주 남성 노인의 유형구분	62
6. 쪽방 장기 거주 남성 노인의 쪽방유입과정 분석	64
제5장 결론	66
참고문헌	70

제 3 편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의 쪽방촌 거주 경험과 그 의미

제1장 연구의 배경	75
제2장 선행연구와 자료를 통한 쪽방 관리인에 대한 고찰	78
제3장 연구방법	82
1. 연구 현장	83
2. 정보 제공자	83
3. 자료 수집	84
4. 연구의 윤리적 이슈	85
5. 자료 분석 방법	86
제4장 연구결과	87
1. 생계	87
2. 관계	93
3. 이방인	101
제5장 논의 및 결론	105
참고문헌	108

표/그림 차례

제 1 편 쪽방거주자 현황 및 욕구에 관한 연구

<표 2-1> 쪽방의 특성별 정의	6
<표 2-2> 쪽방의 물리적 정의 구분	7
<표 2-3> 공간넓이를 기준으로 한 거주지 유형	7
<표 3-1> 변수의 구성과 내용	10
<표 4-1> 사회인구학적 일반적 특성	12
<표 4-2> 거주현황	13
<표 4-3> 쪽방생활만족도	14
<표 4-4> 대전역 주변 쪽방 및 취약거주지 유형	16
<표 4-5> 거주지 유형	17
<표 4-6> 거주지 부대시설	18
<표 4-7> 질병유무	19
<표 4-8> 질병유형	19
<표 4-9> 응급경험	20
<표 4-10> 무료진료 및 약품 이용현황	20
<표 4-11> 이용하는 병·의원	21
<표 4-12> 장애 유형과 등급	23
<표 4-13> 음주와 흡연실태	24
<표 4-14>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	24
<표 4-15> 주요수입원과 직업	25
<표 4-16> 수입 현황	26
<표 4-17> 수급자와 비수급자 수입·지출 비교	26
<표 4-18> 주요 수입 및 명목별 지출 현황	27
<표 4-19> 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28
<표 4-20> 식사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29
<표 4-21>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29
<표 4-22> 가장 시급한 문제	30
<별표 1> 쪽방상당소별 쪽방에 대한 개념 정의(인용)	37
<별표 2> 기관별 쪽방에 대한 개념 정의(인용)	38
<별표 3>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39
 [그림 4-1] 연령과 성별	11
[그림 4-2] 쪽방 지역	15

제 2 편 쪽방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의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표 4-1〉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50
〈표 4-2〉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51
〈표 4-3〉 쪽방 장기거주 남성 노인의 유형별 특성	63
[그림 4-1] 쪽방거주 남성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모형	53

제 3 편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의 쪽방촌 거주 경험과 그 의미

〈표 2-1〉 쪽방설치수와 거주민 현황	79
〈표 2-2〉 쪽방상담소가 파악하고 있는 건물 수와 관리자의 평균운영방수	80
〈표 4-1〉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의 삶	87
[그림 4-1]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의 쪽방촌 거주 경험의 구조	104

제 1 편

쪽방거주자 현황 및 욕구에 관한 연구

김정득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정여주 (우송대학 사회복지·아동학부)

김태윤 · 문선진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제1장 서론

쪽방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해 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1997년과 1998년 즈음이다. 기업의 파산과 극도로 위축된 경제활동은 대량실업 사태를 이끌었고, 무수한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가정이 해체되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 근로자들은 거리노숙이나 임시방편으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쪽방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전영주, 2009). 대도시를 중심으로 저렴한 노동력의 도시 유입을 통해 1960년대부터 형성된 쪽방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의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이소정, 2006). 이처럼 도시지역의 주거 빈곤은 최저주거기준¹⁾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형 주거공간인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지하셋방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쪽방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쪽방 거주자들은 서로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일종의 지역문화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문화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이소정, 2006; 송민경, 2005; 남기철, 2000).

쪽방의 모습은 각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다. 쪽방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과거에 도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대도시 기차역 주변 구도심 지역으로 도심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에 밀집해 있다(전남일, 2011). 둘째, 공간적인 협소함으로 인해 한 사람이 겨우 잠을 잘 수 있으며, 화장실이나 부엌 등의 편의시설이 없거나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하성규 외, 2005). 셋째, 쪽방 거주자의 70~80% 이상이 단신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연화·최수진, 2002; 서종균, 2000)이다.

쪽방 거주자의 문제는 노숙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잠재적인 노숙인의 범주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많은 쪽방 거주자들이 장기간 쪽방이나 쪽방 인근지역에서 머물러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노숙인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쪽방 거주자가 독립적인 공간에서 정주하면서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빈곤층이라는 점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주민등록지가 말소된 노숙인과 구별된다. 쪽방 거주자에 대해 정부는 2000년 3개소(서울 중구, 서울 종로, 부산 동구), 2001년 6개소(서울 용산, 서울 영등포, 부산 진구, 대구 북구, 인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생활기준으로서,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이 규정된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별지1>과 같다.

천 부평, 대전 동구)와 2002년 1개소(인천 동·남구)의 쪽방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 및 취업알선, 목욕·세탁·화장실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001년 대전 동구에 설치된 쪽방상담소는 쪽방 거주자 722명²⁾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주거복지사업 등을 진행하였다³⁾.

쪽방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쪽방이라는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실태조사 및 연구(전남일, 2011; 김민진, 2009; 채명진, 2008; 이소정, 2006; 김윤이, 2005; 대한주택공사, 2005; 박재현, 2002; 신현종, 2001; 최지훈·이준호, 1999)와 쪽방 거주자의 삶과 특성을 이해하려는 양적 및 질적 연구(허소영, 2010; 전영주, 2009; 권지성, 2008; 김미량, 2008; 김미령, 2007; 문정우, 2007; 김윤이, 2006; 송민경, 2005, 장호덕, 2004; 이동현, 2004; 장준배, 2002; 김선희, 2001; 김인옥, 2000; 서정균, 1999; 최지훈, 1999)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쪽방연구는 서울,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사회복지 욕구를 이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하지만 대전 쪽방 지역을 배경으로 수행된 연구는 권지성의 문화기술지(2008)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대전역 주변 쪽방 밀집지역을 배경으로 쪽방 거주자의 현실적인 사회복지 욕구를 이해하고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쪽방 거주자와 같은 취약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조사는 대전지역 쪽방 거주자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정책적 개입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대전 쪽방상담소 3/4 실적보고

3) 쪽방상담소 기능제고에 관한 연구 참조

제2장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쪽방, 쪽방지역, 쪽방 거주자에 관해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쪽방 거주자의 삶과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쪽방 거주자의 물리적 환경인 쪽방이라는 거주공간을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쪽방 거주자들의 삶과 특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쪽방과 쪽방지역의 특성, 실태, 변화과정, 대책논의(전남일, 2011; 김민진, 2009; 채명진, 2008; 이소정, 2006; 대한주택공사, 2005; 김윤이, 2005; 박재현, 2002; 신현종, 2001; 최지훈·이준호, 1999), 쪽방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특성에 관한 양적 연구(전영주, 2009; 김미량, 2008; 김미령, 2007; 송민경, 2005, 장호덕, 2004; 장준배, 2002; 김선희, 2001), 쪽방 거주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질적 연구 또는 인터뷰 정리(허소영, 2010; 권지성, 2008; 문정우, 2007; 김윤이, 2006; 이동현, 2004; 김인옥, 2000; 서정균, 1999; 최지훈, 1999) 등이 있다. 이밖에 최근에 쪽방상담소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장민철, 2011), 비주택거주민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헌석·여경수, 2011) 등 쪽방 거주자의 사회적·법적 지원체계에 대한 제언을 담은 내용이 발표되었다.

한편 쪽방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들은 쪽방 거주자가 당면한 주거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특정 지역 쪽방 거주자들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욕구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대전지역 쪽방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권지성(2008)의 연구가 유일한데 이 또한 쪽방 거주자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복지 욕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대전 쪽방 및 쪽방 거주자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쪽방의 특성뿐 아니라 쪽방지역과 거주자의 실태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쪽방 거주자들을 통해 이들의 거주현황 및 복지적 욕구를 파악해, 향후 쪽방에 대한 복지적 개입의 토대를 마련코자 한다.

2. 쪽방의 실태

1) 쪽방의 정의

쪽방의 정의⁴⁾는 많은 기관 및 단체와 각 지역의 쪽방상담소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쪽방에 대한 정의는 물리적 특성, 비용적 특성, 거주자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물리적 특성과 비용적 특성은 그동안 이루어진 쪽방 실태조사를 통한 쪽방 자체에 대한 정의이며 쪽방 거주자의 특성 부분은 쪽방 거주자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정리된 것이다.

<표 2-1> 쪽방의 특성별 정의

구분	내용	특성
물리적 특성	•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도, 욕실, 부엌 같은 편의시설 미비 • 1평 규모의 소액임차 주거용 방 • 역 근처나 도심 인근지역 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 최저기준 미만의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부대시설이 없는 방 • 쪽방 밀집지역에 0.5~2평 크기의 방 • 주거형태가 방1개, 임시 통로에 간이 부엌을 설치하거나, 공동 화장실·세면장 사용 • 개별취사, 세면, 용변 등의 기초적인 부대시설이 없는 방	• 거주공간의 협소 • 부대시설의 부재열악
비용적 특성	• 일세나 무보증 월세로 1일 이용료 5000원 이하를 넘 • 임대인 경우 거의 보증금이 없거나 50~100만원 수준에 해당되고, 월세는 15만원 내외 또는 일세로 1만원 수준의 방을 사용 • 낡고 오래된 여관이나 여인숙 등이 보증금 없이 일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임대하는 방 • 무허가 숙박용 방(여인숙 포함)	• 저렴한 일세월세보증금
거주자 특성	• 거주자는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낮은 도시 최빈곤층으로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단신·가족, 취약·주거 불안 계층이 거주하며 수급권자나 비정기적인 일자리와 건설 일용직과 같은 이직이 강하며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주거 공간 • 일일 노동자 등 최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일·월세로 생활하는 주거지 • 단신·가족단위로 기거를 하며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이직이 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주거 공간 • 건설일용이나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단신생활자나 독거노인, 노숙경험자들이 주로 이용	• 이동성이 강함 • 무직 또는 불안정한 직업 • 저소득 • 단신거주자가 많음

4) 장민철(2011)의 쪽방 관련 기관별 정의와 쪽방상담소별 정의는 <별표1>과 <별표2>를 참조할 것.

쪽방의 정의 중에서, 쪽방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정의를 <표 2-2>와 같이 협의적, 광의적, 초광의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는 <표 2-3>과 같이 공간넓이를 기준으로 거주지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실천 현장에서 이러한 물리적 정의는 쪽방상당소 대상의 범주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협의적 정의는 쪽방의 언어적 의미에 가장 충실한 것으로써, 1평 미만의 단칸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초광의적 정의는 여관,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크기와 상관없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거주 공간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쪽방 상당소의 대상을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확대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광의적 정의를 사용하였다. 이는 대전지역 쪽방 실태를 고려했을 때, 초광의적 정의에 포함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공간의 환경이 협의적 정의의 쪽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방문조사와 면담, 거주 공간 이용 실태 조사, 그리고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수행된 모니터링을 통해 수차례 확인한 바이다.

〈표 2-2〉 쪽방의 물리적 정의 구분

구분	내용	유형
협의적 정의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는 1평 미만의 방으로, 욕실·부엌 같은 편의시설이 부재하여 공동 화장실과 공동 세면장을 사용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형태	A 유형
광의적 정의	2평 남짓 크기의 방으로 기초적인 부대시설인 화장실·부엌 등을 갖출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 형태	A, B 유형
초광의적 정의	거주 공간이 충분하더라도 부대시설이 열악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 형태	A, B, C 유형

〈표 2-3〉 공간넓이를 기준으로 한 거주지 유형

구분	공간 넓이 기준	부대시설 기준
A 유형	1평(3.31㎡) 미만	미달
B 유형	1평(3.31㎡) 이상 4.2평(14㎡)미만	미달
C 유형	4.2평(14㎡) 이상	미달
D 유형	4.2평(14㎡) 이상	만족

2) 쪽방 거주자의 특성

선행연구와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쪽방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쪽방의 정의 부분에서 정의되고 있듯이 이동성이 강하고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저소득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결혼 경험이 없거나 가족해체상태로 단신 거주자가 많다는 것이다(김민진, 2009; 전영주, 2009; 채명진, 2008; 김미령, 2007; 이소정, 2006). 이밖에도, 낮은 교육수준, 고령, 장애,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 없음, 노숙 경험 있음 등(권지성, 2008; 송민경, 2005)으로 나타났다.

3) 대전역 주변 정동, 삼성동, 원동의 쪽방 밀집 지역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 지역인 대전역 주변 쪽방 밀집 지역은 동구에 위치한 3개의 법정동(정동, 원동, 삼성동)과 2개의 행정동(중앙동, 삼성동)에 걸쳐있는 지역으로써, 과거 변화했던 구도심 지역이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좌우(남북) 방향 1km 내 역전1길, 역전시장길, 창조1길에 집중되어 하나의 긴 열을 이룬다. 이 지역에 쪽방과 쪽방 거주자가 밀집된 이유는 교통의 편리성과 인력시장 및 노점상이 밀집하여 최저소득층의 전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전역 주변에서 생활하는 홈리스가 노숙 생활을 끝내고 쪽방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다. 쪽방상담소,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쉼터 등 복지기관들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이다.

제3장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조사는 대전역 주변 쪽방 지역에서 생활하는 쪽방 거주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자 심층면담과 설문조사(2차)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대전지역 전체 쪽방거주자는 약 722명⁵⁾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 중 시에서 위탁하여 대전복지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은 대전역 부근 정동, 원동, 삼성동에 위치한 쪽방 242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중 실제 접촉이 가능했던 삼성동 17명, 정동 115명, 원동 17명(총 149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2. 조사방법

2012년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총 106명의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방문하여 30분에서 70분에 걸친 1차 욕구조사 및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이후 신규 이주자와 2차 욕구조사(90명)를 통해 추가 조사된 쪽방 거주자 등을 포함하여 총 149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는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시범사업⁶⁾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묻는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설문 전에는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쳐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모두 수기로 받아 적었으며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2명이 24시간 이내에 내용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소득 및 지출 부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동 주민센터와 삼성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 최근 3개월 간 정부보조금 수령 현황을 조사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1차 조사에서는 크게 쪽방 거주자의 일반사항, 주거 및 취사, 근로·수입·지출, 정부지원, 시설이용 경험, 의료 및 질병, 쪽방에서의 욕구 등이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쪽방 거주자의 거주지 유형, 거주지의 부대시설,

5) 대전 쪽방상당소 3/4 실적보고

6)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시범사업

소득 및 지출, 거리 및 시설 거주 경험, 질병, 받는 서비스 내용과 기관 등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회에 걸쳐 조사된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은 <표 3-1>과 같다.

<표 3-1> 변수의 구성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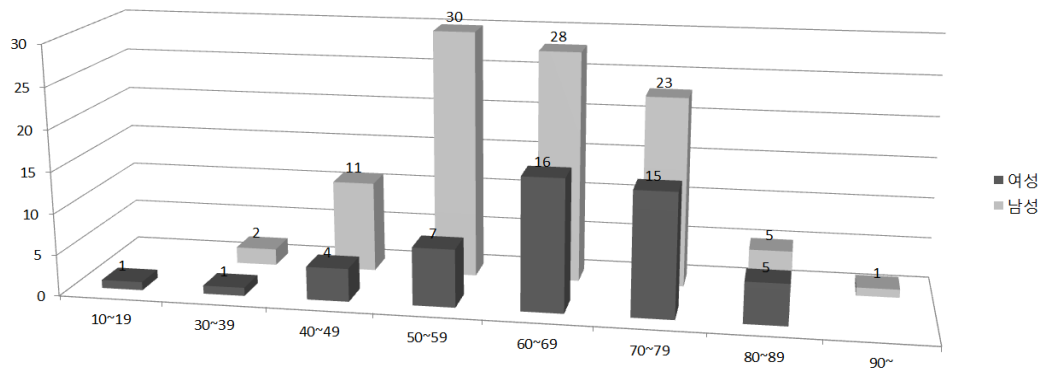
구분	조사내용
기본인적정보	연령, 성별, 교육, 결혼관계
사회관계	가족관계, 이웃·친구·종교·친인척 관계
주거현황	쪽방거주기간, 쪽방거주이유, 쪽방거주형태, 월세비용, 쪽방생활만족도
경제상황	주요수입원, 현재직업, 무직이유, 신용상태, 신용불량금액, 수급자분류, 수급액, 소득 및 지출
건강과 장애	질병유무, 질병종류, 의료기관 이용경험, 장애유무, 장애등급 및 분류, 알코올중독, 담배(니코틴)중독
사회복지 욕구와 서비스	경제문제, 주택문제, 사회지원, 시설입소, 법률문제, 건강문제, 수발문제, 정신건강, 가족문제, 이용서비스
거주지	거주지 유형, 거주지 편의시설, 거주경험, 이주욕구

제4장 조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전역 쪽방 거주자의 남녀 성비율은 <표 4-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가 67.1%로, ‘여자’ (32.9%)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9.5%로 가장 많았고, ‘70대’ (25.5%), ‘50대’ (24.8%) 순이었다. 평균 연령은 62.84세로 나타나 전국 쪽방 거주자 평균(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쪽방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대한주택공사, 2004). 연령과 성별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남성의 경우 50대, 여성의 경우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 또한 각각 61.67세, 65.98세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1 참조).

[그림 4-1] 연령과 성별



〈표 4-1〉 사회인구학적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N=149)	남자	100	67.1
	여자	49	32.9
연령 (N=149) 평균 연령: 62.84세	10대	1	0.7
	30대	3	2.0
	40대	15	10.1
	50대	37	24.8
	60대	44	29.5
	70대	38	25.5
	80대	10	6.7
	90대	1	0.7
교육수준 (N=141) 평균 교육연수: 6.08년	초등학교중퇴(1~5년)	31	20.8
	초등학교졸업(6년)	36	24.2
	중학교중퇴(7~8년)	7	4.7
	중학교졸업(9년)	20	13.4
	고등학교중퇴(10~11년)	2	1.3
	고등학교졸업(12년)	13	8.7
	대학교중퇴(12~14년)	7	4.7
	대학교졸업(15~16년)	3	2.0
혼인상태 (N=144)	기혼/지속	13	8.7
	기혼/해체	88	59.1
	미혼(독신/동거)	43	28.9
가족유무 (N=140)	없음	60	40.3
	있음	80	53.7

이들의 교육연수는 평균 6.08년이며, ‘초등학교 졸업’(24.2%) 또는 ‘초등학교 중퇴’(20.8%), 그리고 ‘무학’(15.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약 63%로 교육수준이 평균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결혼을 하였으나 이혼 및 별거, 사별 등의 이유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59.1%로 가장 높았으며, ‘미혼’인 경우도 28.9%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조사 대상자 중 약 54%였으나, 이 가운데 60% 정도는 가족이 사는 곳을 알고 있으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로 밝혀졌다. 따라서 쪽방거주자 대부분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거주현황

〈표 4-2〉는 쪽방 거주자의 일반적인 거주 현황이다. 쪽방 거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정동(77.2%)이며, 삼성동과 원동은 각 11.4%로 같은 비율이었다. [그림 4-2]는 조사 대상 중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110명의 거주지(적색)를 지도로 나타낸 것으로서⁷⁾, 대전역을 중심으로 삼성시장1길, 역전1길, 창조1길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쪽방으로 유입된 경로는 ‘본인선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8%로 가장 높았고, ‘지인소개’를 통해 유입된 경우는 10.4%였다. 쪽방 거주자가 쪽방에 거주한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15.38년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 5년 미만’이 22.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1.0%이다. 거주기간에서 주목할 점은 10년 이상 쪽방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53.2%로 절반 이상인 점이다. 특히 ‘40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13.3%로 밝혀져 대전역 주변 쪽방 지역 거주자의 경우 상당히 장기 거주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현재의 거주 계약 형태는 ‘월세’가 80.4%로 가장 많았으며, ‘자가’(15.9%), ‘전세’(2.9%), ‘일세’(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거주현황

변수		빈도(명)	백분율
소재동 (N=146)	삼성동	17	11.4
	정동	115	77.2
	원동	17	11.4
쪽방유입경로 (N=106)	본인선택	91	85.8
	지인소개	11	10.4
	기관연계	2	1.9
	기타	2	1.9
쪽방거주기간 (N=143)	1년 미만	16	11.2
	1년 이상 ~ 5년 미만	32	22.4
	5년 이상 ~ 10년 미만	19	13.3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	2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15	10.5
	30년 이상 ~ 40년 미만	12	8.4
	40년 이상	19	13.3
	평균 쪽방거주기간: 15.38년		
현재거주형태 (N=138)	자가	22	15.9
	전세	4	2.9
	월세	111	80.4
	일세	1	0.7

7) 7월 거주지 현황 조사, 지도에 표시된 거주지의 크기나 위치는 실제와 다름.

쪽방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좋다’는 응답도 18.5%로 나타나 쪽방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며 살아하는 거주자가 64.2%로 조사되었다. 이는 생활여건의 불편함을 상쇄할 만큼 오랜 기간 거주하게 만든 다른 요인들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들이 사회에 단절되어 있던 오랜 시간 동안 ‘무인도’(권지성, 2008:144)의 삶에 나름 적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쪽방 생활에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서 ‘계절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6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겨울에 난방시설이 없고, 여름에는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79.1%가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쪽방 거주자들 대부분은 현재 자신의 생활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생각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3〉 쪽방생활만족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쪽방생활만족도 (N=68)	매우 나쁨	14	17.3
	조금 나쁨	15	18.5
	조금 좋음	37	45.7
	매우 좋음	15	18.5
불만족이유 (N=48)	위험	2	4.2
	계절에 취약	29	60.4
	사생활침해	2	4.2
	위생	4	8.3
	주위시선 및 낙인	3	6.3
	기타	8	16.7
이주의향 (N=86)	없음	68	79.1
	있음	18	20.9

[그림 4-2] 쪽방 지역



3. 거주지 유형 및 편의시설

대전역 주변 쪽방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물리적 공간을 ‘쪽방’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포함시키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 유형을 <표 4-4>에서와 같이 대전역 주변 쪽방 환경에 맞도록 구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4-4〉 대전역 주변 쪽방 및 취약거주지 유형

구분	정의
창고형	협의적 정의의 쪽방으로 주거 목적인 아닌 창고, 화장실 등의 공간을 개조하여 만든 1평 전후의 좁은 공간
여인숙	임시 주거 목적의 2-3평 전후의 공간, 화장실과 부엌이 공동으로 있는 경우가 많음
여관	임시 주거 목적의 2-4평 정도의 공간, 화장실(세면대/변기)이 개인용으로 있는 경우가 많음
모텔	임시 주거 목적의 3-5평 이상의 공간, 상대적으로 쾌적하며 화장실과 샤워/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음
다세대 개조형	개조된 건물로 복합적인 다가구를 포함하고 있음. 지하/반지하 셋방, 또는 반층형도 다수 있으며, 부엌/화장실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일반주택형	마루나 마당을 포함한 단독 일반주택. 매우 노후한 경우가 많으며,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다수의 거주자가 주택을 공유함
상가/창고 복합형	상가 또는 창고 공간을 개조하여 이에 딸린 방으로 구성된 공간
점포/판자형	오래된 1층 상가형 건물, 판자지붕이 흔함
여인숙/여관/모텔 관리방	여인숙, 여관, 모텔 등의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서, 주로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사용함. 관리방 이외에 별도의 거주공간을 사용하기도 함

거주지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목적이 아니었던 건물에 여러 개의 방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형태인 ‘다세대 개조형’ (30.7%)과 오래된 1층 점포형 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점포/판자형’ (22.7%), 그리고 ‘여인숙’ (20.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대전역 주변의 쪽방은 협의적 의미의 쪽방으로 정의하기에는 그 유형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표 4-5 참조).

〈표 4-5〉 거주지 유형

변수		빈도(명)	백분율(%)
거주지 유형 (N=88)	상가/창고 복합형	5	5.7
	여인숙/여관/모텔 관리방	8	9.1
	여인숙	18	20.5
	여관	3	3.4
	다세대 개조형	27	30.7
	일반주택형	7	8.0
	점포/판자형	20	22.7

대전역 주변 쪽방의 경우 대부분 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매우 열악한 조건임이 밝혀졌다.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거주지 에 어떠한 형태로든 ‘수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개인: 60.0%, 공용: 38.9%), ‘세면대’(없음: 87.8%), ‘샤워기’(없음: 86.7%), ‘욕조’(없음: 96.6%) 등은 거주하는 건물 안에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위생을 위한 부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쪽방상담소나 관련 복지기관을 통해 주로 전달되는 ‘선풍기’(개인: 88.8%), ‘냉장고’(개인: 78.7%), ‘전기장판’(개인: 64.4%), ‘휴대용버너’(개인: 61.6%) 등과 같은 생활 필수품의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겨울철 난방’(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전기보일러 없음: 27.0%)과 ‘온수’(사계절 온수 가능: 6.7%, 겨울 온수 가능: 25.0%)의 이용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라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공용 보일러: 16.8%), 건물의 주인이나 관리인이 난방을 조절하기 때문에 혹한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난방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 쪽방거주자가 전기장판만으로 혹한추위를 견디며 생활하고 있었으며, 하절기에는 덥고 습한데다 환기까지 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위생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표 4-6〉 거주지 부대시설

변수		없음		개인		공동	
		n	%	n	%	n	%
거주지 부대시설 (N=88~90)	침실	0	0.0	90	100.0	0	0.0
	창문	14	15.7	75	84.3	0	0.0
	수도	1	1.1	54	60.0	35	38.9
	세면대	79	87.8	7	7.8	4	4.4
	샤워기	78	86.7	7	7.8	5	5.6
	욕조	86	95.6	2	2.2	2	2.2
	변기	1	1.1	28	31.1	61	67.8
	선풍기	8	9.0	79	88.8	2	2.2
	세탁기	36	40.4	36	40.4	17	19.1
	냉장고	18	20.2	70	78.7	1	1.1
	휴대용버너	32	37.2	53	61.6	1	1.2
	설치용버너	51	58.0	37	42.0	0	0.0
	부엌	48	53.9	40	44.9	1	1.1
	전기장판	30	34.5	56	64.4	1	1.1
	연탄보일러	53	59.6	32	36.0	4	4.5
	기름보일러	68	76.4	12	13.5	9	10.1
	전기보일러	81	91.0	6	6.7	2	2.2
	사계절온수	83	92.2	6	6.7	1	1.1
	겨울온수	60	68.2	22	25.0	6	6.8
	마루	88	97.8	2	2.2	0	0.0
	마당	83	92.2	6	6.7	1	1.1
	베란다	90	100.0	0	0.0	0	0.0

4. 건강과 장애

쪽방 거주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결과, <표 4-7>에서와 같이 91.9%가 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2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87.2%로 나타나 대부분 건강상태가 매우 취약하고 의료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았다.

〈표 4-7〉 질병유무

변수		빈도(명)	백분율
질병유무 (N=148)	없음	12	8.1
	1가지	7	4.7
	2가지 이상	129	87.2

<표 4-8>은 조사대상자가 앓고 있는 질병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이다. 분석결과 ‘고혈압’ (32.9%), ‘하체관련 질환’ (24.0%), ‘당뇨’ (18.5%), ‘관절염’ (16.4%), ‘허리 질환’ (15.1%) 등 단기간의 치료로 완치될 수 없는 만성질환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하체관련 질환이 있는 쪽방 거주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급식, 생활물품 수령, 기관 방문 등 쪽방에서 생활하기 위한 필수적 서비스를 원활히 받기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웃리치 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8〉 질병유형

변수		빈도(명)	백분율	변수		빈도(명)	백분율
질병유형 (N=146, 다중응답)	허리질환	22	15.1	질병유형 (N=146, 다중응답)	뇌졸중	3	2.1
	피부질환	3	2.1		치매	1	0.7
	하체관련 질환 (엉덩이, 다리, 발)	35	24.0		눈 관련 질환 (백내장 등)	5	3.4
	팔 관련 질환 (어깨, 팔, 손)	6	4.1		관절염 (류마티스 등)	24	16.4
	정신질환	8	5.5		간질	4	2.7
	고혈압	48	32.9		척추질환	10	6.8
	간 관련 질환	11	7.5		고지혈	4	2.7

변수	빈도(명)	백분율	변수	빈도(명)	백분율
호흡기 관련 질환	13	8.9	신장 관련 질환	6	4.1
소화기 관련 질환	14	9.6	골다공증	4	2.7
귀 관련 질환	2	1.4	갑상선	1	0.7
당뇨	27	18.5	전립선	2	1.4
심장질환	9	6.2	기타	10	6.8
뇌성마비	1	0.7			

이외에도, <표 4-9>에서처럼 ‘응급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42.0%(1번: 36.5%, 2번: 41.7%, 3번 이상: 20.9%)로 쪽방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예방차원의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9〉 응급경험

변수	빈도(명)	백분율
응급경험 유무 (N=88)	없음 있음	51 37
응급경험 횟수 (N=24)	1번 2번 3번 이상	9 10 5
		37.5 41.7 20.9

한편, ‘무료진료’ 및 ‘무료약품’을 이용하는 쪽방 거주자는 <표 4-10>과 같이 각각 18.9%와 34.4%로 매우 높다. 이는 쪽방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의료보호대상자로 무료병원진료가 가능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비수급자의 경우 질병에 대한 의료비부담이 매우 커 무료 진료 및 무료 약품을 받기 위해 보건소 및 희망진료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무료진료 및 약품 이용현황

변수	이용자(명)	백분율	주요서비스 제공기관
무료진료 (N=90)	17	18.9	보건소(4명), 희망진료소(13명)
무료약품 (N=90)	31	34.4	보건소(21명), 희망진료소(10명)

쪽방 거주자는 질병치료를 위해 ‘일반 병·의원’ (63.2%), ‘종합병원’ (31.6%), ‘무료진료소’ (5.1%)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표 4-11 참조). 쪽방 거주자의 69.4%가 일반수급자이기 때문에 1차 의료급여 기관을 지정하여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내과치료를 위해서 이들이 거주하는 쪽방 주변에 있는 ‘충남의원’, ‘이주택내과’, ‘덕인의원’을 많은 수(48.6%)가 이용하고 있었다. 그 외에 안과 질환, 정형외과 치료를 위해 ‘신안과’와 ‘윤재활외과’를 각각 4.1%, 대전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민들레 생협 의원’도 4.1% 이용하고 있었다.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31.6%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 중에서 쪽방과 물리적인 거리가 가장 가까운 ‘성모병원’ 이용률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병원’과 ‘충대병원’ 이용은 각각 18.9%였고, ‘을지대 병원’은 10.8%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외에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보건소’나 ‘희망진료소’를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중 5.1%로 낮게 나타났다.

〈표 4-11〉 이용하는 병의원

변수		빈도(회)	항목백분율	전체백분율
이용하는 일반 병·의원 (N=74, 63.2%)	충남의원	26	35.1	22.2
	이주택내과	6	8.1	5.1
	덕인의원	4	5.4	3.4
	신안과	3	4.1	2.6
	윤재활외과	3	4.1	2.6
	민들레생협의원	3	4.1	2.6
	김선무의원	2	2.7	1.7
	김철호비뇨기과	2	2.7	1.7
	대전한방병원	2	2.7	1.7
	연합의원	2	2.7	1.7
	한독병원	2	2.7	1.7
	고려내과	1	1.4	0.9
	김기홍가정의학과	1	1.4	0.9
	김동권내과	1	1.4	0.9
	김진혁정형외과	1	1.4	0.9
	로고외과	1	1.4	0.9
	미소의원	1	1.4	0.9

변수		빈도(회)	항목백분율	전체백분율
	박기서내과	1	1.4	0.9
	박정진내과	1	1.4	0.9
	박중찬내과	1	1.4	0.9
	밝은누리안과	1	1.4	0.9
	성모자이병원	1	1.4	0.9
	약손한의원	1	1.4	0.9
	엄정형외과	1	1.4	0.9
	올리브내과	1	1.4	0.9
	이안과	1	1.4	0.9
	장요식내과	1	1.4	0.9
	참사랑요양병원	1	1.4	0.9
	최동원내과	1	1.4	0.9
	효성병원	1	1.4	0.9
이용하는 종합병원 (N=37, 31.6%)	성모병원	14	37.8	12.0
	선병원	7	18.9	6.0
	충대병원	7	18.9	6.0
	을지대병원	4	10.8	3.4
	건양대병원	2	5.4	1.7
	한국병원	2	5.4	1.7
	서울아산병원	1	2.7	0.9
이용하는 무료진료소 (N=6, 5.1%)	보건소	3	50	2.6
	희망진료소	3	50	2.6

조사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 가운데 장애유형과 등급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표 4-12>와 같다. 조사결과, 쪽방 거주자의 28.4%가 ‘장애 있음’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전시민의 장애인 비율 4.7%, 중앙동의 장애인 비율 9.2%인 점을 비교할 때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 전체적으로 장애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신체장애’가 82.4%, ‘정신장애’(대분류)가 17.6%로 나타났으며,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45.7%)와 ‘지적장애’(11.8%)가 가장 많았다.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4급’ 장애인이 25.7%로 가장 많았고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도 10명(28.6%)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8) 외국인 제외한 통계임.

〈표 4-12〉 장애 유형과 등급

변수		빈도(명)	백분율
장애유무 (N=134)	없음	96	71.6
	있음	38	28.4
장애종류 (대분류) (N=34)	신체장애	28	82.4
	정신장애	6	17.6
장애종류 (N=34)	지체장애	16	47.1
	척추장애	2	5.9
	정신장애	2	5.9
	지적장애	4	11.8
	시각장애	3	8.8
	청각장애	2	5.9
	간장애	1	2.9
	간질장애	2	5.9
	신장장애	1	2.9
	언어장애	1	2.9
장애등급 (N=35)	1급	4	11.4
	2급	6	17.1
	3급	6	17.1
	4급	9	25.7
	5급	4	11.4
	6급	6	17.1

쪽방거주자의 음주 및 흡연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표 4-13>에서 제시하였다. 이들 중 ‘음주’를 하는 사람은 36.6%였으며, 이들 가운데 ‘1회 음주시 1명 초과’하는 문제성 음주자의 비율이 11.6%로 나타났다. 또한 쪽방거주자 중 ‘흡연’자는 65.8%였으며, 이들 중 37.6%의 쪽방거주자가 ‘하루 반 갑 이상’의 담배를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대부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수급자의 경우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사용하는 등 소비행태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3〉 음주와 흡연실태

변수		설명	빈도(명)	백분율
음주 (N=95)	없음		54	56.8
	경	1회 1병 이하	30	31.6
	중	1회 1병 초과	11	11.6
흡연 (N=117)	없음		40	34.2
	경	하루 1/2 갑 미만	33	28.2
	중	하루 1/2 갑 이상	44	37.6

쪽방거주인 가운데 정신건강상 문제를 가진 사람이 전체 장애인의 26% 정도로 밝혀졌는데 (표 4-12 참조), 문제성 음주자를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표 4-14〉는 조사대상자 가운데 정신보건 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기관 현황이다. 현재 정신장애자 6명 중에서 2명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 문제성 음주자로 의심되는 11명 중에서 2명이 ‘라이프라인 알코올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제성 음주자는 홈리스의 지속적인 쪽방 유입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치료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4〉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

변수	이용자(명)	백분율	주요서비스 제공기관
정신보건 (N=90)	5	5.6	장애인가족지원센터(2명), 라이프라인 알코올센터(2명), 이운희 정신과(1명)

5. 경제적여건

쪽방 거주자의 주요수입원과 직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4-15〉에서와 같이, 현재 ‘일반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69.4%로, 쪽방 거주자의 2/3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수급을 받지 못하는 쪽방 거주자의 비중은 29.9%

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등의 이유로 현재 수급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수입원에 대해서 쪽방 거주자의 70.6%가 건강문제 및 노령 등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여 정부보조금⁹⁾으로 생활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근로’를 통한 수입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20.9%)도 ‘재활용품 및 폐지수집’, ‘장사’, ‘단순노무’ 등을 주요 수입원이라 밝히고 있어 매우 불안정한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민들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에서 ‘불량’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42.7%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15〉 주요수입원과 직업

변수		빈도(명)	백분율
수급자 분류 (N=144)	일반수급자	100	69.4
	차상위계층	1	0.7
	저소득	43	29.9
현재직업 (N=136)	없음	117	79.1
	단순노무	8	5.4
	재활용품 및 폐지 수집	8	5.4
	노점 및 자영업	11	7.4
	기타	4	2.7
주요수입원 (N=136)	근로	18	13.2
	정부보조금	96	70.6
	친/인척의 도움	7	5.1
	없음	10	7.4
	기타	5	3.7
신용상태 (N=96)	정상	55	57.3
	불량	41	42.7

쪽방 거주자의 수입현황을 보았을 때, 이들의 평균 수입은 458,069원으로 나타났다. 최소 95,700원의 경우 노령연금만 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최대 1,032,193원으로 응답한 경우 4인

9) 정부보조금은 기초수급지급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되었다.

가족이 수령할 수 있는 정부 생계급여의 최대금액이다(표 4-16 참조). 일반수급자에 해당하는 쪽방 거주자의 대부분은 ‘생계 및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두 급여를 합쳐 평균 417,041원을 수령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최소 75,700원으로 이는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 받는 금액이며, 최대 94,600원을 받는 경우는 노인 단독 혹은 부부 중 한명만 노인인 경우에 수령하는 금액이다. ‘장애수당’은 최소 15,000원에서 최대 169,600원 받고 있으며 수령액의 차이는 장애 급수에 따른 장애수당 차등 지급으로 인한 것이다.

〈표 4-16〉 수입 현황

주요수입원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수입평균	89	95,700	1,032,193	458,069	126,785
생계 및 주거급여	59	21,830	1,032,193	417,041	113,130
노령연금	36	75,700	94,600	92,500	6,024
장애수당	21	15,000	169,600	58,733	56,458
근로소득	28	20,000	600,000	244,286	209,875
사회보험	2	120,000	200,000	160,000	56,569
민간보험	1	369,000	369,000	369,000	.
재산소득	5	100,000	300,000	142,000	88,431
가족보조금	15	50,000	400,000	193,333	111,590
민간보조금	1	20,000	20,000	20,000	.
기타소득	2	100,000	340,300	220,150	169,918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볼 때, ‘수급자’에 비해 ‘비수급자’의 총수입이 95,476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지출 역시 57,881원(하절기 기준)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쪽방에 거주하는 ‘비수급자’의 경제적 수준은 수급자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7〉 수급자와 비수급자 수입·지출 비교

구분	총수입 평균	근로소득 평균	국가보조금 총합 평균	하절기 총지출 평균	동절기 총지출 평균
비수급자	393,703원	192,593원	91,324원	368,317원	378,145원
수급자	489,179원	28,772원	442,007원	426,198원	429,823원

쪽방 거주자의 지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표 4-18 참조), 지출금액이 최소 72,000원에서 최대 1,037,000원으로 나타나 전체 지출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주거비’ 지출이 최소 50,000원에서 250,000원(평균 120,147원) 이어서, 쪽방 지역 내에서도 월세로 지출하는 주거비 금액이 매우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겨울 난방비’는 특히 쪽방 거주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연탄을 보조받거나 난방비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지원규모는 동절기(11월~2월) 혹한을 지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양이다. 본 조사에서 쪽방 거주자의 동절기 4개월간 난방비 지출은 최소 100,000원에서 최대 750,000원 정도(평균 345,000원)로 생계비의 많은 부분을 난방비로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4-18〉 주요 수입 및 명목별 지출 현황

주요수입원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지출평균(하절기)	89	72,000	1,037,000	407,338	156,180
지출평균(동절기)	89	77,000	1,048,250	412,984	158,024
주거비	68	50,000	250,000	120,147	37,516
광열수도비	48	10,000	200,000	41,875	37,539
겨울난방비	48	2,500	50,000	10,469	9,385
식료품비	84	10,000	300,000	139,167	60,330
외식비	13	10,000	300,000	93,077	95,863
주류비	19	10,000	60,000	29,211	13,770
담배비	53	3,000	150,000	55,211	27,036
보건의료비	53	3,500	200,000	55,840	42,767
통신비	72	700	150,000	21,792	22,900
생활용품	54	5,000	70,000	21,519	13,239
피복비	31	5,000	60,000	18,710	14,374
사교육비등	1	300,000	300,000	300,000	.
교양	2	40,000	80,000	60,000	28,284
교통비	37	3,000	100,000	27,108	22,834
사회보장	2	21,000	200,000	110,500	126,572
세금	6	14,200	50,000	30,067	14,165
생계보조금	3	20,000	800,000	373,333	395,137
지출기타	8	7,000	100,000	59,625	36,071

한편 ‘식료품비’의 경우 1만~30만원(평균 139,167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출의 약 26.9%에 해당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료급식을 이용하거나 외식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경우에는 집에서 직접 취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식비’ 지출도 1만~30만원(평균 93,077원)으로 조사되었다. 쪽방 거주자는 그들의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 19명의 쪽방 거주자가 평균 29,211원을 ‘주류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53명이 ‘흡연’을 위해 평균 55,211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보건의료비’는 최소 3,500원에서 최대 200,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는데(평균 55,840원),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과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큰 편차를 보였다.

이 밖에도 ‘통신비’와 ‘생활용품’, ‘피복비나 교양비’(사회서비스 자기부담금), ‘교통비’ 등으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쪽방 거주자는 빈곤한 경제적 상황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 인근 지역사회에서 제공받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내역은 아래의 <표 4-19>와 같다.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쪽방거주자는 ‘무료급식’(21.1%), ‘도시락 서비스’(11.1%), ‘밀반찬 서비스’(53.3%)를 이용하고 있었다. 밀반찬 서비스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대전복지재단의 사례관리대상자로 밀반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생필품지원은 ‘쪽방상담소(41.1%)’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19〉 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변수	이용자(명)	백분율	주요서비스 제공기관
급식 (N=90)	20	22.2	쪽방상담소, 새나루공동체(, 동구 노인복지관, 성모의 집, 대전역 무료급식(은총섬김회 등)
도시락 (N=90)	10	11.1	은총섬김회, 새나루공동체, 동구자활센터
밀반찬 (N=90)	48	53.3	대전복지재단, 쪽방상담소
사회서비스 (N=90)	9	10.0	노래교실, 안마서비스, 여행서비스, 스마트케어, 문화바우처
생필품지원 (N=90)	37	41.1	쪽방상담소
기타 (N=90)	7	7.8	쪽방상담소, 제일교회, 인동교회, 푸드뱅크, 밀알복지관

〈표 4-20〉에서는 쪽방 거주자의 식사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들은 무료급식소 ‘서비스 이용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77.8%로 나타나, 홈리스와는 달리 무료급식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택이나 이웃의 거주지에서 요리하여 식사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자택에서 도시락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개 이상의 기관을 통해 식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17.8%)는 많지 않아, 대상의 중복 정도는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식사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구분	급식 이용자(명)	백분율	급식, 도시락, 밀반찬 이용자(명)	백분율
서비스 이용 안 함	70	77.8	28	31.1
1개 기관 이용	17	18.9	46	51.1
2개 기관 이용	3	3.3	15	16.7
3개 기관 이용	0	0.0	1	1.1

식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은 〈표 4-21〉과 같다.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식사 및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12년 대전복지재단 시범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전복지재단 복지만두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쪽방상당소(12.2)’, ‘은총섬김회(7.8%)’, ‘대전역 급식(3.3%)’, ‘동구 노인복지관(3.3%)’, ‘새나루공동체 급식(2.2%)’, ‘새나루공동체 도시락(2.2%)’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4-21〉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주요 서비스 기관	내용	이용자(명)	백분율
대전복지재단 복지만두레	밀반찬(주 1회)	47	52.2
쪽방상당소	급식(주 5회)	11	12.2
은총섬김회	도시락(주 2회)	7	7.8
대전역 급식(은총섬김회 등)	급식(주 6회)	3	3.3
동구 노인복지관	급식	3	3.3
새나루공동체	급식(주 5회)	2	2.2
새나루공동체	도시락(주 5회)	2	2.2

6. 쪽방거주자의 서비스 욕구

쪽방 거주자 본인이 인식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파악한 결과 <표 4-22>와 같이 확인되었다(다중응답). 응답가운데 ‘건강문제’가 3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거문제’(25.2%)와 ‘경제문제’(16.0%) 등의 순이었다. 이를 볼 때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 생활 조차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취약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기초한 맞춤형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22> 가장 시급한 문제

변수		빈도(명)	백분율
가장 시급한 문제 (N=119)	건강문제	39	32.8
	주거문제	30	25.2
	경제문제	19	16.0
	사회지원	10	8.4
	정신건강	5	4.2
	법률문제	3	2.5
	가족문제	2	1.7
	수발문제	1	0.8
	시설입소	1	0.8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쪽방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주 공간으로 정의하고, 대전역 주변에서 생활하는 쪽방 거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거, 경제, 건강 등 주요 사회복지 욕구별 현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쪽방 거주자가 이용하고 있는 자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에 관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대전시의 쪽방과 쪽방 거주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얻은 사회복지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쪽방 거주자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쪽방 거주자 대부분이 가족과 단절되어 있으나, 노화, 질병, 장애, 알코올 중독 등의 이유로 긴급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체 관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쪽방 거주자가 많아 이들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쪽방 거주자에 대한 정기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거·경제·건강 상태 확인, 정서적 지지 제공, 긴급 상황 예방,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쪽방 거주자의 경우 복합적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고 의료서비스 욕구가 매우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쪽방 거주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 중 건강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많은 쪽방 거주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복합적·만성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1차 병원에서의 검진 외에도, 정기적인 2차 병원에서의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쪽방 거주자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2차 병원 진료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질병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쪽방 거주자에게 의료 서비스가 시의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무료진료소,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상담, 건강검진, 무료의료서비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쪽방 거주자가 비록 매우 열악한 조건의 거주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보다는 현재 거주하는 대전역 주변 쪽방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대체로 현재의 쪽방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기간 쪽방과 대전역 주변 지역에서 정주하며, 거주 지역에 대한 애착과 이웃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이유로 사료 된

다¹⁰⁾. 따라서 수요자 욕구를 중심으로 생각해볼 때, 타 지역 임대주택으로의 이전방안보다 지역 내 주거환경개선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쪽방 거주자 중 비수급자의 기본 생계유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비수급자는 주로 불안정한 근로활동과 가족으로부터의 용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수급자의 수입보다 오히려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더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위기상황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비수급자의 경우 대부분이 소득기준보다 자산기준(대부분 거주지 정도의 자산이 있으나 가처분소득은 거의 없는 상황임)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요건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 제도를 고려했을 때, 차상위계층을 위한 긴급의료지원제도가 확충되거나 보건소나 시립병원(대전에는 아직 없음)을 통해 비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쪽방 거주자를 위한 식생활 지원 서비스가 다양한 주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이를 위한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쪽방 지역에는 쪽방상담소, 대전역 무료급식(은총섬김회 등), 새나루공동체, 대전복지재단이 각각의 대상을 위해 식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조사결과 대상의 중복현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 서비스의 대상을 분명히 구분하고 서비스를 통합·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알코올 중독과 정신 장애로 의심되는 쪽방 거주자를 위한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이들은 다른 일반 쪽방 거주자보다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데, 쪽방 관련 기관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수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등은 보다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이들에게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본 조사가 쪽방 거주자의 현안 욕구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쪽방 거주자는 단순히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관련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가족, 이웃과의 따뜻한 애정,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욕구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의식주 등의 생활경제 지원, 건강을 위한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자활과 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제

10) 자세한 사항은 질적 연구 참조

공함으로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지성(2008)의 연구에서 쪽방은 ‘최후의 보루’, ‘형편에 맞는 거처’, ‘재도약을 위한 발판’, ‘무인도’로 표현되었다. 혼자만 있었을 줄 알았던 무인도에서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며, 나름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있는 육지로의 회귀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우리의 추측과 다를 지도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 이유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 공공부조제도만으로는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지성(2008). “쪽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Vol. 60. No. 4. pp. 131-156
- 김미량(2008). “대구지역 쪽방거주자들의 생활실태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민진(2009). “도시빈민지역 주민의 주거 및 이주특성”.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 김선희(2001). “쪽방거주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김윤이(2005). “쪽방지역 철거현황 및 문제점”. 도시와 빈곤. Vol. 74. pp. 170-191.
- 김윤이(2006). “주민이 이야기하는 돈의동 쪽방지역”. 도시와 빈곤. Vol. 82. pp. 67-75.
- 김인옥(2000). “쪽방 사람들의 생활”. 도시와 빈곤. Vol. 45. pp. 93-99.
- 대한주택공사(2005). 쪽방 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 문정우(2007). “거리노숙 탈피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쪽방생활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박재현(2002). “대구지역 쪽방거주자의 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쪽방사람들”.
- 서정균·김윤이·한가영·김필호(2009). “쪽방 주민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재단법인 주거복지재단.
- 서종균(1999). “쪽방사람들에 대한 기록”. 도시와 빈곤. Vol. 38. pp. 74-102
- 송민경(2005). “쪽방 노인 생활실태에 따른 정책 제안 연구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 신현중(2001). “대구지역 쪽방실태와 그 대책”.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동현(2004). “노숙경험 쪽방거주민의 정착을 위한 고민”. 도시와 빈곤. Vol. 67. pp. 106-116.
- 이소정(2006). “관자촌에서 쪽방까지 -우리나라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Vol. 29. 167-208
- 이헌석·여경수(2011). “비주택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공법학연구. Vol. 12. No. 3, pp. 363-388

- 장민철(2011). “쪽방상담소의 역할과 과제”. 도시와 빈곤. Vol. 95. 8-25
- 장세훈(1997). “까스텔의 ‘새로운 도시사회학’ : 도시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 국토. 1997. 11월
- 장준배(2002). “쪽방거주자들의 사회적 연계 단절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장호덕(2004). “취약계층(노숙인, 쪽방생활자) 실태조사”. 석사학위 논문.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전국쪽방재생포럼(2007). 쪽방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열린 포럼.
- 전남일(2011). “최소한의 주택의 사회사적 변천과 공간 특성: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서울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 27. No. 3. pp. 191-202
- 전영주(2009). “부산지역 쪽방거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채명진(2008). “불량주거 실태와 정책과제: 쪽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Vol. 14. pp. 123-168
- 최지훈(1999). “쪽방 사람들이 살아온 길과 현재의 삶”. 도시와 빈곤. Vol. 40. pp. 24-49.
- 최지훈, 이준호(1999). “서울도심주변 쪽방지역 연구: 쪽방 지역의 토지이용: 건축물 관리 현황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Vol. 5. pp. 21-38.
- 하성규 외(2005).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2. 쪽방 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대한주택공사 연구보고서
- 허소영(2010). “쪽방지역에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삶의 경험”. 韓國老年學, 30(1), p241-260.

부록

최저주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쪽방상담소별 쪽방에 대한 개념 정의(인용)

기관명	개념정의
남대문 쪽방상담소 (2000)	남대문로 5가에 있는 쪽방밀집지역(남대문경찰서 뒤쪽과 연세빌딩 뒤쪽)에 0.5~2평 크기의 방이며 1960년대 노후 건물을 현재 0.5~2평의 쪽방으로 개조되어 쪽방이 다수인 건물은 한 건물 당 평균 40개 이상이 있으며, 일일노동자 등 최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일월세(월세 18~24만원, 일세 7~8천원)로 생활주거지
인천 쪽방상담소 (2003)	주거형태가 방 1개, 임시 통로에 간이 부엌을 설치하거나, 공동화장실과 공동세면장을 사용하는 곳은 쪽방의 범주에 넣음. 또한 재래식 여인숙에서 거의 한 사람만 잘 수 있는 장기 셋방을 얻어 사는 곳도 쪽방의 범주에 넣음. 임대인 경우, 거의 보증금이 없거나 50만원~100만원 수준에 해당되고 월세 15만원 내외, 또는 일세로 1만원 수준의 방을 사용하는 이들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쪽방 지역에 쪽방 2칸을 내어 공동세면장이나 목욕시설 등을 갖추게 됨
대전 쪽방상담소 (2005)	보증금 없이 일세월세를 지불하는 부대시설(세면취사화장실 등)이 없는 방으로서 독산가족단위로 기거를 하며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이직이 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주거 공간
대구 쪽방상담소 (2001)	일세 혹은 월세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개별취사, 세면, 용변 등의 기초적인 부대시설이 없는 방에, 독신 혹은 가족단위로, 일용직 등과 같이 이동이 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거주 공간
부산 동구진구 쪽방상담소 (2000)	넓고 오래된 여관이나 여인숙 등이 보증금 없이 일세(6천원~1만원 미만) 또는 월세(9~15만원 이하)의 형태로 임대하는 방을 말하며 건설일용이나 낱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단신생활자나 독거노인, 노숙경험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시설이 낡아 일반인 상대의 일일영업은 하지 않으며 공동화장실과 공동세면장을 사용한다.
쪽방재생 포럼(2006)	역 근처나 도심 인근지역 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임대차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시설

〈별표 2〉 기관별 쪽방에 대한 개념 정의(인용)

기관명	개념정의	비고
한국도시 연구소 (2000)	① 방의 크기가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도이며 별도의 욕실이나 부엌과 같은 편의시설이 방마다 미비, ② 거주자는 대체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낮은 도시의 최빈곤층으로 특히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③ 대개 일세나 무보증 월세로 운영되는 형태	서울지역을 중심 설비 등 물리적 측면과 거주민의 사회적 특성 고려
보건복지부 (2003)	숙식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불편하고 열악한 방 · A형: 3평 이하의 서민용 방을 상·하 또는 중·횡으로 구획하거나 본채에서 달아낸 약 1평 규모의 소액임차 주거용 방, · B형: 실직·노숙자 등이 무료 또는 1일 이용료 5,000원 정도를 내고 숙식하는 약 1평 규모의 무허가 숙박용 방 · C형: 월세 5,000원 이하를 내며,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 한 약 1평 규모의 숙식용 방 전수조사 당시 대전지역에서 보건복지부에 쪽방의 개념에 "여인숙"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보건복지부에서 포함 결정	쪽방 및 비닐하우스 생활자 일제조사 (국기법 수급권자격 보호, 주거복지 시책개선)
대한주택공사& 한국도시 연구소 (2005)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임대차 계약에 의하지 아니 한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시설	주거시설,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반영
쪽방재생포럼 (2006)	역 근처나 도심 인근지역 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용도로 사용 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임대차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시설	쪽방재생포럼 참여단체 협의
전국쪽방 상담소협의회 (2009)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보증금 없이 일세·월세· 사글세를 지불하는 부대시설(세면·취사·화장실 등)이 없는 방으로서 단신·가족, 취약·주거불안계층이 거주하며, 수급권자나 비정기적인 일자리와 건설일용직과 같은 이직이 강하며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 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주거 공간	전국쪽방상담소 협의

〈별표 3〉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제 2 편

쪽방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의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김정득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정여주 (우송대학 사회복지·아동학부)

본 연구의 목적은 쪽방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의 삶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쪽방 노숙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을 이끌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방법 중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해 이들의 삶의 과정을 탐색해 보았다.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원 자료를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방코딩한 결과 총 11개의 주제범주와 27개의 개념범주, 151개의 의미범주가 추출되었다. 이를 요약해 보면, 중심현상을 일으킨 인과적 조건은 ‘절망적 위기’이며,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중심현상은 ‘단절된 지역에서 홀로 살아가기’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친 맥락적 조건은 ‘희망이 없는 상황’, ‘연명해 감’,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중재적 조건은 ‘도움의 손길들’, ‘지역이웃과 정이 듦’이었으며, 결과는 ‘벗어나고 싶음’, ‘인생살이가 그런 것’, ‘앞날에 대한 염려’로 나타났다.

제1장 문제제기

우리 사회가 쪽방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IMF 경제 위기 이후로, 이때 이후 노숙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었고, 그들에게 사회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생각이 증가되면서이다. 이때 이후 노숙자라는 말이 일반화되었고, 숙소와 급식 등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노숙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또 언제노숙을 하게 될지 모르는 잠재적 노숙자들이 사는 곳으로 쪽방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국도시연구소(2000)의 연구에 의하면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거 빈곤에 처한 사람의 한 유형으로서 이들의 71.1%는 노숙의 경험이 있고, 47.1%는 노숙자용 시설 등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권지성(2008)의 연구에서도 노숙인들과 쪽방거주인들은 근로의욕과 자활에 대한 자립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러한 의지만으로는 쪽방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정의되고 있다.

2011년 6월 현재 등록된 쪽방거주인은 전국에 6,103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장민철, 2011), 이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쪽방의 삶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정도인데,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환기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방열장치가 없 이 냉기가 서린 방, 장마철이나 혹서에 찌는 더위와 곰팡이 서식등 건강에 위협적인 조건을 꼽 자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쪽방은 단지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처’로 주거지로서 최소한의 기능 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한국도시연구소, 2000).

쪽방 지역 거주인들 중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선희, 2001:11). 노 령화와 더불어 노인의 빈곤은 사회적인 현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26.5%, 즉 전 체 수급자의 1/4이 넘는 수가 노인가구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그러나 빈곤한 남성 특히 쪽방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성 노인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었다. 또한 이론적 측면 역시 쪽방 거주자들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밀집된 쪽방지 역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정리하고 도시빈민에 대한 쪽방의 존속 당위성을 찾았던 연구(이준호, 1999; 2000)와, 쪽방거주민들에 대한 생애사조사와 생활문제의 실상을 조명하면서 이들이 잠 재적 노숙인, 한계 계층임을 알려 쪽방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했 던 연구들이(김수현, 2000; 서종균 외, 2000; 서종균, 1999; 최지훈, 1999) 주를 이루었다. 이후 쪽방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대상별 접근을 통해 적절한 지원방식을 제안

(김미령, 2008; 권지성, 2008; 문정우, 2007; 송민경, 2004; 김선희, 2001)하기도 하였으며, 이 밖에도 쪽방거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쪽방거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외에도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었다(홍인옥 외, 2005). 이후 쪽방 거주인에 대한 연구의 초점이 거주복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게 되면서 2007년 쪽방거주민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대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2008년 시행 이후 최근 주거지원사업(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서종균 외, 2009)가 수행된 바 있다.

이처럼 기존의 쪽방지역 거주자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연령이나 남녀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되어 왔는데, 노인 거주자만을 주요 주제로 다룬 것은 송민경(2004)과 허소영(2010)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다. 송민경(2004)의 연구에서는 쪽방 거주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의 삶의 특성 및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허소영(2010)의 연구에서는 홀로 사는 쪽방 거주 남성 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인 접근으로서 이들의 삶의 경험이 갖는 의미와 본질을 밝힘으로서 이들의 경험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였다. 그러나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쪽방 거주 노인을 연구대상자로 하고 있어서 사회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외부세계에 참여의지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와 한계점을 동시에 갖는 연구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들의 삶의 경험을 이해 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어떠한 경로로 그 지역에 유입이 되었으며, 어떤 요인이 그곳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지 등 단순한 거주자로서 ‘머무름’을 넘어 ‘변화’적 측면을 탐색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쪽방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쪽방에 유입되었으며, 이들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점이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쪽방에 거주하게 만드는가? 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삶의 한 시점에 대한 경험뿐 아니라 삶의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 중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되었으며, 이전에 시도되지 않은 연구방법을 통해 쪽방 남성 노인들의 삶의 과정 전반을 재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제2장 문헌검토

1. 쪽방지역에 대한 연구

쪽방은 건물의 물리적 특성, 거주자 특성, 운영형태로 특징지어 설명할 수 있다(권지성, 2008: 133). 물리적 측면에서 성인 한 사람이 간신히 잠만 잘 수 있는 정도이고, 욕실이나 부엌과 같은 편의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없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가족이 없는 도시의 최빈곤층 사람으로서 보증금 없이 일세나 월세를 지급하는 주거형태를 갖고 있다.

쪽방지역은 쪽방이 상대적으로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2000년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는 쪽방이 밀집된 형태로 존재하는 곳은 서울, 대구, 대전 등이다(권지성, 2008). 쪽방에서의 거주는 노숙 바로 이전단계에 있는 극단적인 빈곤의 형태로 분류되며(이소정, 2006), 쪽방 거주자의 대부분은 노숙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혹은 잠재적 노숙자로 쪽방촌 주민들을 바라보기도 한다(서종균, 2000).

기존의 쪽방지역에 대한 연구는 IMF로 인해 노숙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시작이 되었으며, 쪽방 생활실태(한국도시연구소, 2000; 노병일·윤경아, 2004; 송민경, 2004)를 파악하거나 쪽방 거주자들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수들 간의 관계(김선희, 2001; 장준배, 2002)를 분석하거나, 쪽방 거주자들의 생애사나 일생생활(김수현·원승욱·김소임, 2002; 송민경, 2005),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이소정, 2006), 쪽방 거주자들의 정신건강의 문제(권규영·김성현·서미경, 1999; 안준호·홍진표·유제춘·박종익·이철·한오수, 2001; 김미령, 2008), 쪽방 거주자의 일생생활에 대한 연구(권지성, 2008)와 쪽방 거주민의 삶을 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노인에 대한 연구(허소영, 2010)등이 있다.

2. 쪽방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의 삶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 중 하나는 노인 빈곤문제로서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35.1%로 전체 가구 빈곤율보다 2.8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비율이 2006년에 31.2%이었던 것이, 2007년 31.9%, 2008년 32.5%로 해마다 높아지

고 있다(석상훈·김현수, 2012).

최근에는 쪽방 지역 거주자들은 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선희, 2001:11). 중·장년층은 일용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반면 쪽방노인층은 빈곤 노인계층으로 건강악화와 노동력 상실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송민경, 2004:2). 경제적 어려움을 인해 빈곤노인가구로 전락함과 동시에 폐쇄적이고 비위생적인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한 영양 상태와 만성질환 등으로 쪽방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이 쪽방노인들의 생활실태 연구 및 사회복지지원 체계의 부재로 정책적 차원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노인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약 2~4배 가량 높은 사망률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석원, 2012). 쪽방거주 노인들 중 대부분이 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등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은 심리사회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특성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낮고,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와 지지 정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장준배, 2002; 김선희, 2001; 한국도시연구소, 2000).

이들은 살아가는 삶 자체를 스트레스로 인식 하고 있으며 마지못해 살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되는데, 이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쪽방 거주 노인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허소영(2010)은 쪽방지역에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마음 돌 곳 없어 외로운 신세’, ‘쓸모없는 입’, ‘편견과 차별에 주눅 드는 삶’, ‘사람노릇하며 산다’는 네 가지 주요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남성상이 내면화되어 있는 이들이 존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의존적이며 도움을 받는 수혜자로서의 접근이 아닌 강점관점의 실천적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쪽방거주 남성 노인들의 삶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의 정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고립되어 살아가며 제반 여건이 취약한 빈곤 노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사회복지적 접근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제3장 연구방법

1. 근거이론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늘 존재해온 쪽방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성노인들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며, 특히 그들의 특별한 주거 경험과 그곳에 머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쪽방거주 남성노인의 시각으로 생생한 경험을 그려볼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 그 중에서도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쪽방거주 남성노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고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현상에 대한 분석틀을 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 근거이론 접근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근거이론 접근은 선행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현상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분석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근거이론 연구는 특정 상황에 관련된 어떤 이론, 즉 어떤 현상에 대한 추상적 분석적 구조를 생성하거나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Creswell, 1998). 그 현상에 속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발견하고, 발전시킴으로, 잠정적 증명에 도달하게 만들 수 있다. 연구자는 면접 자료를 수집하며, 현장을 수차례 거듭 방문하고, 정보의 범주들을 개발하고 상호 관련시키며, 이론적 명제 혹은 가설을 쓰거나 이론에 대한 시각적 그림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노인들의 주거 경험 및 쪽방에 머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자 범주들이 포화될 때까지 면접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위해 현장에 수차례 방문하면서 대상자 14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23회 실시하였다. 또한 관찰결과와 문헌을 수집, 분석하면서 동시에 결과를 보는 ‘지그재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였다.

2. 연구 참여자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을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것이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남성노인들의 주거 경험 및 쪽방에 머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1차적으로 대전복지재단의 사례관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자로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받은 후, 본 연구 취지에 동의하고 자신의 경험을 잘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65세 이상 남성노인 14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해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참여자 선정과 분석과정은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총 14사례 23회의 면접이 이루어졌고, 각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회기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고, 사전 동의를 얻어 모든 과정을 녹음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수집된 녹음자료를 필사하여 이를 원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의 절차는 자료수집과 동시에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각 단계별 과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개방코딩 단계는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명명하여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고나 사건, 물체, 작용/상호작용을 하위 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면담한 내용을 한 줄씩 분석해 나가는 줄단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료를 읽어 가면서 연구자에게 의미 있거나 분석적으로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진술에 번호를 붙이며 옆이나 모서리에 개념을 찾아 명명하였고, 마음에 떠오르는 의미를 메모하였다.

축코딩 단계는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범주를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하위 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축코딩은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인데,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과적 상황, 현상, 맥락, 중재적 조건, 전략, 결과라는 근거이론의 틀에 맞추어 내용범주를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는 이야기 윤곽과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하여 유형분석을 하였으며, 과정 분석 단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을 순서적으로 연결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이슈

본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을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4가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고려하면서 연구의 질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재를 반영하였나 하는 것으로 이는 양적 연구의 내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였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자료 수집 시에 참여자들과의 오랜 기간 동안 쌓아 온 관계형성을 통해 최대한 사실적 경험에 입각한 진술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며, 장시간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적용성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다른 맥락이나 장소 또는 다른 집단에 의미 있고 적용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 선정시 100여 명의 쪽방 남성노인 가운데 본 연구취지에 부합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을 기했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지 않을 때까지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포화시킴으로서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관성은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결과의 일관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쪽방의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4명의 사례관리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참여자의 진술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해 이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여러 명의 사례관리자들로부터 다각적인 내용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의도 없이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객관성을 재차 확인 하였다. 실재를 더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기 위하여 본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자료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교하여 생각하기, 회의적인 태도 유지하기, 연구절차 따르기의 과정을 통해 연구의 엄격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였으며, 비밀보장과 자료의 익명처리됨을 사전에 공지하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전지역의 쪽방지역에 거주하며 만 65세 이상의 남성 노인 14명이며, 이들은 대전 복지재단 『쪽방마을사랑나누기』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난 3월 1차 초기상담을 진행한 후 본 연구를 위해 1-2차례 심층면담에 참여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1〉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연번	나이	쪽방거주기간	질병	수급여부	결혼상태	자녀상태
1	72	5년	없음	일반수급자	기혼/해체	단절
2	70	2년	절뚝거림, 어지러움증, 당뇨, 혈압	비수급자	기혼/해체	단절
3	80	약 30년	혈압(만성), 심장, 전립선	일반수급자	기혼/해체	단절
4	75	7년	허리협착증, 심장, 위	일반수급자	동거/해체	없음
5	74	10년	백내장	일반수급자	기혼/해체	없음
6	70	약 20년	허리, 혈압, 무릎	일반수급자	기혼/해체	없음
7	72	약 30년	관절	일반수급자	기혼/해체	단절
8	67	약 10년	위암	일반수급자	기혼/사별	사망
9	66	6년	복사뼈골절	일반수급자	미혼	없음
10	70	14년	왼쪽팔 못씀, 관절염, 어지러움증	일반수급자	기혼/해체	단절
11	77	16년	관절	일반수급자	기혼/해체	단절
12	68	약 30년	관절, 디스크	일반수급자	미혼	없음
13	71	5년	암	일반수급자	기혼/해체	없음
14	91	약 40년	위암	일반수급자	미혼	없음

2. 근거자료에 나타난 개념과 개념의 범주화

쪽방거주 노인의 경험을 아래와 같이 유사한 개념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11개의 주제범주와 27개의

개념범주, 151개의 의미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개방코딩에서 얻은 개념을 범주화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주제범주	개념범주	의미범주
절망적 위기	위기가 찾아옴	독촉전화가 올, 사업에 실패함, 돈을 잃어버림?
	가정파탄	자식이 아니라 웬수임, 아들이 싸수가 노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함, 형제들도 나쁜 놈임, 우애 없이 양육한 아버지를 원망함, 친척 있어도 소용없음, 결혼했다가 실패함, 처자식이 사고로 모두 죽고 혼자됨
	오갈 데가 없음	노숙함, 실패하게 되어 오갈 데가 없음
희망이 없는 상황	하루하루가 지옥임	사는 게 참 지옥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을까? 자살할까? 하는 생각 밖에 안남, 하루하루 지내는 게 지옥이다.
	골병이 뚫	다리가 불편해짐, 발목을 못 쓰게 됨, 어깨, 허리통증, 관절염, 발톱무좀이 있음, 허리가 상하고 닳아가지고 없다고 함
	술로 살음	술로 살 때가 많음, 잊고 싶어서 마심
연명해감	목구멍이 포도청	정부에서 돈 주는 걸로 먹고 사는 거지, 노령연금 안주고 하면 힘들죠, 여유가 있으면 모아지는데 돈이 안 모아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깜빡하면 그 돈이 없어짐, 오죽 하면 정부 돈 타 먹었어 타먹기도 불편하잖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국가 보조를 받음	수급자 신청을 해야 되나 형제들이 창피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일도 못하고 부모가 해준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수급자가 됨, 고물을 주우면서 생활하다가 수급자가 됨, 허리를 다쳐서 수급자가 됨
단절된 지역에서 홀로 살아가기	사람 사는 데가 아님	돈이 있으면 다른 곳에 살겠음, 다리도 쪽 못 뺀고 잠, 방이라고 할 수 없다. 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에는 밖에 보다 더 추움, 방음이 되지 않음, 곰팡이가 쏘아서 냄새가 많음, 사람 사는 데가 아님, 지저분함, 비좁아서 답답함, 씻기가 어려움, 불편한 게 한두가지가 아님,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함, 비가 새고 엉망임
	내 처지에 맞는 곳	여기가 저렴함, 떼돈으로 옮기려고 해도 돈이 안됨
	왔다 갔다 함	오전에서 밖에서 놀다 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운동 삼아 그렇게 시간을 보냄, 폐지를 주우러 다님, 지하철에 가 있음, 다리 밑에서 비람을 씬, 장사하는 것을 낙으로 함
	몸이 성치 않음	환병이 있음, 거동이 어려움, 매일 움직이지 않으면 고통이 심함, 나이 먹으면 먹을 수록 생기는 건 병밖에 없음, 절룩절룩 걸어 다님, 허리를 다쳐서 장애인이 됨, 이빨이 없어서 불편함, 감기를 달고 살음, 심장 수술을 받음, 수술을 해도 낫지도 않음, 호수를 차고 있음, 숨이 차서 멀리 못 감, 병이 못 낫고 죽을때까지 가져가야 함, 굉장히 통증이 있음, 용종이 선종이 있다고 함, 혈압과 당뇨가 있음, 녹내장 백내장이 있음, 녹내장 수술할 정도면 그때는 죽어야겠음, 뱃속도 나쁨, 간이 안좋음, 풍기가 있다고 함, 혈관이 막혀 약으로 살음, 다 안좋음
도움의 손길들	도움에 감사함	복지재단에서 도배와 장판을 해줌, 복지재단에서 도시락을 줌, 이빨도 해줌, 창문도 갈아줌, 교회에서 도움을 받음, 수술비 지원을 받음, 군청과 구세군에서 도와줌
	어려울 때 의지함	도와달라하면 도와주지만 마음은 불편함, 전화하면 복지사들이 와줌, 인연이 되어서 아버지 소리도 듣고, 나도 딸내미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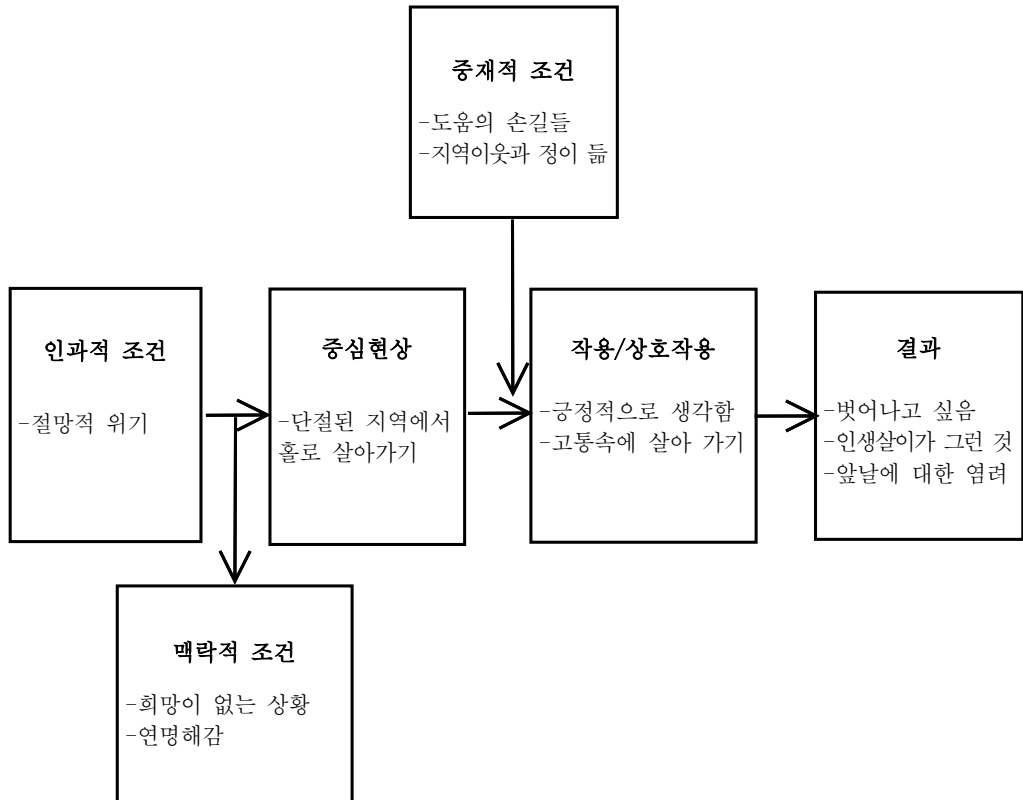
주제범주	개념범주	의미범주
지역이웃과 정이 듦	고향이 되 버림	집 아주머니도 좋고, 아저씨도 좋고 다 좋아서 나갈마음이 없음, 완전한 고향이 되어 서, 나 없으면 동네에서 찾을, 정이 많아서 못가게 함,
	동네의 파수꾼	여기서 무슨 일 있으면 다 나한테 와서 얘기해줌, 환경에 대해서는 내가 처리 함, 시 장에서 아줌마들 도와주고 하면 다 좋아함, 내가 착하게 살아서 길을 가다가도 도와 주고 감
	떠날 수가 없음	여기서 정을 붙이고 살고 있음, 일하기 어렵고 나이가 있어서 쪽방에서 밖에 살 수 없음, 낯선 곳에 살면 힘들, 어디로 살 데가 없음
긍정적으로 생각함	인지 되는 이웃들	이곳에 고향이 되어 나 없으면 동네에서 찾을, 집 아주머니도 좋고 아저씨도 좋고 다 좋으니까 나갈 마음도 없고, 손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된다고 같이 밥을 먹자고 밥을 해주고 나는 쌀을 팔아줌, 여기 아줌마고 아저씨들이고 정이 많아서 못 가게 함, 친 구들을 사귀어 왔다 갔다 함, 나가서 한바퀴 돌면 술마실 사람도 있고 빈대떡 구워주 는 사람도 있음
	스트레스 풀기	화초를 가꾸다보면 잡념이 없어짐, 취미로 붓글씨를 씀, 자전거를 탐
고통 속에 살아가기	뜯어먹는 사람들	여기 놀 사람이 없음, 배울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음, 남 잘 되는거 못보고, 남한테 배울 줄 모름, 상대를 할 수 없음, 이곳에 사는 사람은 멍청하니까 살음, 나쁜 놈들 이 많음, 전부 도둑놈 임
	인식이 안좋은	창피하기도 함, 선량한 시민이 전과자처럼 낙인 됨, 여기 생활하는 사람들 수준이 안 좋은,
벗어나고 싶음	돈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음	돈이 있으면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면 좋겠음,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것임, 내가 여러 역을 다녀봤지만 대전역 같은 곳은 처음임
	일하고 싶음	일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음, 공공근로도 비리가 많음, 충분히 일 을 할 수 있음, 일을 하면 수급자가 안됨, 일을 해서 벌금을 물음
인생살이가 그런 것	그냥 살음	수급비만 올려주면 좀 지내기가 나음, 그냥 사는 것임, 좋을까 뭐 있어요, 그냥 안 좋아,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게 편하게 살고 있음
	극복해 나가는 것임	나 입장으로는 행복하다 뭐 그렇게 생각함,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극복을 해야 지, 배운게 있으니까 극복해 나가는 거지, 참고 견디고 이런 거는 잘한다고, 세상살 이가 뭐든 흘러감
앞날에 대한 염려	죽지 못해 사는 것임	사는데 인생이 사는 것임, 인생살이가 도움 받아가면서 억지로 사는 것임, 하루 지나 가는게 지옥임, 내가 죄 받아서 그러나, 무슨 팔자가 이러나 싶어, 힘들 때 많죠, 외 로움, 얼른 죽었으면 함, 어려운 것을 말하면 말할 수 없어요, 못 죽어서 사는 것임, 사는게 쉽지 않음
	건강이 안좋은	오늘 같지 내일 같지 모르지, 병원도 한번 가보고 싶는데도 그 병원에 갈라고 하면 미안함, 병원비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병원에 못 감

3.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분석

근거이론에서 축 코딩은 하위 범주들을 연관지어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조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은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에 의해 진행되는데,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순으로 범주들이 구조화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쪽방거주 남성 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쪽방거주 남성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모형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된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쪽방거주 남성노인들의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인과적 조건은 ‘절망적 위기’이다. 이들은 경제적 파탄이나 가족해체라는 절망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노숙이나 극빈층하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1) 절망적 위기

쪽방거주 남성노인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 혹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관계고립 등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결국 이 곳 쪽방에 머무는 단초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위범주 1. 경제적 위기가 찾아옴

“서울에서 빵 만들어서 그걸 납품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자가용 좋은 거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망가져버리고. 빵에 뭐 부패가 나가지고. 학생들이 천 명이 누워 있으니까. 그것을 못 하니까. 그럼 난 그러다가. 그 뒤로 뭘 한다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 동생도 보태고. 몇 억 가지고 하다가. IMF가 딱 와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사례 11)”

하위범주 2. 가족해체

“내가 여자를 만났어. 서울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았지. 여자가 죽었지. 남매 낳아놓고. 딸내미 아들 내미는 광주에 있어. 저도 광주에서, 광주까지 가서 묻어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로 내려 와 버렸지. 거기서 살기 싫어서(사례 7)”

하위범주 3. 오갈 데가 없음

“카드에서도 쫓아오고, 가족들한테도 못할 짓을 많이 했고. 있을 때가 없었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사례 14)”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일련의 속성들의 구체적인 장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며 수행하고,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 (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서는 ‘희망이 없는 상황’, ‘연명해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범주들은 오갈 때가 없게 된 상황 이후에 이들의 인식 및 대처방법으로서 쪽방에서 살아가기의 맥락이 되어 작용/상호작용과 결과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희망이 없는 상황

쪽방에 거주하는 남성노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지낸다. 현재 처한 상황을 잊기 위해 선택한 술, 술은 추위와 시름을 잠시 잊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이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살아 있는 목숨, 어쩔 수 없이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위범주 1. 하루하루가 지옥임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이고. 또, 여름에는 더워서 고생이고.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돈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른 데를 못 가지 좀 더 나은 데를 못가는 거지.(중략) 씻는 것은 저 밑에 세면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씻는 거지. 세수하고. 여름에는 거기 가서 샤워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찬 물이니까 못 씻고 목욕탕을 가고 그러지(사례 5)”

하위범주 2. 골병이 들

“막노동했어요. 포장마차에서도 일해보고. 저기 뭐야, 흥인상가 앞에 주황아파트? 있었거든요. 거기 골목 포장마차 2군데 있었는데. 내가 뭐 힘이 있다고. 혼자. 이런 상 있잖아요. 동그란 상. 가운데 연탄 피우는 거. 그거 되게 무거워요. 그거 혼자서 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아무 일도 못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만날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되요(사례 12)”

하위범주 3. 술로 살음

“술은 먹을 때는 몇 병 먹어. 하루에 먹으면. 술로 살았어(사례 1)”

(2) 연명해감

이들은 장기간의 방황기를 보내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각종 질병으로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질병이나 노령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정부로부터 공공부조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고 이후 복지급여라는 충분치 않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생기면서 최소 수준의 생계유지가 가능해진다.

하위범주 1. 목구멍이 포도청

“대전에서는 내가 뭐, 일 하루씩 한 다음에 그냥 몇 천 원씩 받고 일을 했지. 그걸로 먹고 살다가. 그러다 내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 되가지고. 내가 먹고살 수 없어서 영세민을 만들었지. 그거야. 다리 아파 가지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수술하고 근데 일을 못하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니까 그런지 한참 오래됐어(사례 7)”

하위범주 2. 정부보조를 받음

“자식 놔두고, 자식 어디있는지도 모르지요. 수급자도 아니고 했는데, 그때 약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랬가지고. 그랬가지고 내가 남 주는 거. 장기기증서약. 음. 그거. 그걸로 해가지고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죽어버리려고. 동사무소에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고. 어르신이 입장이 그러면은 수급자로 돈 탈 수 있게 해줄게 해. 그랬가지고 그 말을 듣고 듣는 대로 해줄게. 근데 동사무소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서류를 내래. 딸내미 사위 도장 받아오고, 어머니 도장 받아오고, 자식들 도장 받아오라는데. 자식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어머니랑 딸내미 사위 도장은 받아올 수 있지. 서울에서 좀 곤란해

요. 그래가지고, 암만. 뭐 재산이 조금 있다고. 있어도 뭐 다 넘어가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호적 등본하고 딱 떼 가지고 올려놔어요. 올려주고 해 났더니, 아 그래도 소식이 없어 딸 놈이. (중략)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돼서 서류를 해서 수급자 2급으로 딱 해 주더만은 (사례10)”

3)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 자료에서의 중심현상은 ‘단절된 지역에서 홀로 살아가기’이다. 이 범주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오갈 데가 없게 되면서 간신히 연명하며 누추한 거처 쪽방에서 살아가는 남성노인들, 힘겨운 삶의 경험에 대한 주요 단서가 ‘단절된 지역에서 홀로 살아가기’이다.

(1) 단절된 지역에서 홀로 살아가기

참여자들은 쪽방이라는 곳이 ‘사람 살 데가 못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의 금전적 상황으로는 쪽방을 벗어날 수 없다. 여름에는 끈적한 습기와 숨 막히는 찜통더위 여기에 곰팡이와 각종 해충들을 견뎌야 한다. 또한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와 전기장판 하나로 혹한기를 지낼 수밖에 없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인근이나 대전 역사 근처를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한 달을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정도라 쪽방 장기거주는 그들의 처지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들은 이전에 살아온 세상과는 단절한 채 그들만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위범주 1. 사람 사는 데가 아님

“더워가지고. 아 찜통이고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요. 저기서 햇빛 탁 쏘이니까. 방음이 되어야 하는데 방음이 안 되었거든. 근데 이게 수급자들이 사는 방이지, 거쳐 가는 사람들은. 곰팡이 썰어서 하는데(사례 2)”

하위범주 2. 내처지에 맞는 곳

“그러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이고. 또, 여름에는 더워서 고생이고.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돈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른 데를 못 가지 좀 더 나은 데를 못가는 거지(사례 5)”

하위범주 3. 왔다 갔다 함

“여기 11시 정도 되면 이제 그 겨울에는 추우니까 일찍 안 나가는데. 요새는 여름이다 보니까. 방은 좁고 얼마나 덥겠어요. 올 여름은 얼마나 더웠어요? 그러니까 11시경에 점심 먹고. 점심 한 숟갈 먹고 나가서 이제 시원한데 다니면서 바람도 쐬고. 갈 데가. 나가야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이 목척교 다리 밑에 가면은 다리 밑에 물 내려가고 바람 부는 곳 가면 시원해. 거기 좀 가서 놀다가, 아니면 중앙로 만남의 광장에 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그래. 갈 데 가없어(사례 5)”

하위범주 4. 몸이 성치 않음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열 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병이 못 낫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된다고 해요. 통증이 와서 막. 굉장히 통증이 와요(사례 3)”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도움의 손길들’, ‘지역 이웃과 정이 둘’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기저기서 도와주는 정도와 이웃과 정이 든 정도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의 전략 중 특정한 범주들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도움의 손길들

참여자들은 쪽방에 살아가면서 복지기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또한 어렵고 힘들 때 인연 맺은 지역 이웃들에게 의지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

하위범주 1. 도움에 감사함

“저기 누군가 와가지고. 그리고 겨울 옷 말이어. 다 그냥 뭐 웬만한 거 다 채워주고. 저기 복지관 거기 가면 선생님 꼭 만나. 키 까딱한 선생. 성함은 잘 몰라. 요기는 그렇게 해서 오래사니까 토박이나 마한 가지여(사례 1)”

하위범주 2. 어려울 때 의지함

“마음이 더 좋아지는데. 내가 뭘 일이 있으면, 복지사들한테 전화하면 와주잖아요(사례 8)”

(2) 지역 이웃과 정이 들

참여자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쪽방환경이 거주지로서는 매우 열악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정이 들어 제 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또한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중재하기도 하는 등 쪽방촌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하위범주 1. 고향이 되 버림

“네네. 여기가 완전 고향이죠. 제 2의 고향이지. 처음에 2 고향은 안 되었었는데, 3 고향이지 이제. 완전히 고향이지. 변함없어요. 나 조금만 없으면 찾고 그래요. 동네에서 그냥(사례 8)”

하위범주 2. 동네의 파수꾼

“전화를 하고 막 그러니까. ‘아 저 양반 건들면 큰일 나~’ 여기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다 와요. 와서 얘기 해주고 그래요. 아 그래? 그 사람 못 쓰겠구만. 일을 몇 개 처리를 했거든. 환경에 대해서는 내가 처리 다해버려. 전화 다 해버려 내가. 구청에서 알아요(사례 2)”

하위범주 3. 떠날 수 없음

“이제 나이도 있고... 어디 가서 사는 것보다 익숙한 이곳에서 사는 것이 편하지. 다른 데가서 또 적응 하는 것보다 낫지(사례 14)”

5)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이 맥락적 조건 안에서 존재하거나 특정한 조건하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여 수행하고 반응하는데 쓰인다(Strauss & Corbin, 1998). 즉,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함’, ‘고통 속에 살아가기’로 나타났다.

(1) 긍정적으로 생각함

참여자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특히 주변이웃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새로운 지지체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하위범주 1. 의지 되는 이웃들

“요 앞집에서 해줘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요. 집에서 밥을 해먹다가, 여기서 밥을 해먹었다 가, 몸이 아파가지고, 아줌마가 예전에 가게 했었는데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된다고. 같이 밥을 먹자고. 밥을 앞에서 해주고, 나는 쌀을 팔아줬지(사례 8)”

하위범주 2. 나름 스트레스 풀기

“그것도 뭐야. 사람이 다 성격 나름인데. 해답도 나름이고.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야하는데. 내가 몇 달 전만해도 붓글씨라도 쓰고 그랬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사례 4)”

(2) 고통 속에 살아가기

참여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다. 이웃들 중에는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본인들을 이용하거나 뜯어 먹으려는 사람들도 있어 적응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또한 늘 성치 않은 몸 때문에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버겁고 고통스럽다.

하위범주 1. 뜯어먹는 사람들

“이 통로에 나쁜 놈들 많아요. 이래가지고 지금도 리어카를 3대를, 4대를 칼로 찌고, 빵꾸 내버리지요. 이 새끼, 요 위에. 많이 맞았어. 내 나이 많다고 깔보고 뭐. 아무리 그래도 여기 사람 사는데 고추 까놓고 오줌 누고 이 지랄 해요. 이라고는 나한테 시팔 놈이 뭐고, 배에 칼자국을 보여주고, 너 잠깐 보자 너 좀 맞아아겠구나. 이래요(사례 10)”

하위범주 2. 인식이 안 좋음

“그 큰 누나가 아파가지고 형제들 모였을 때, 큰형만 이야기 듣고, 아무 말을 안 하는데. 그 때 작은 누나가 첫 번째는 다 같이 만나고, 두 번째는 작은 누나하고 나하고만 만났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 수급자를 뭐 하려고 하느냐고. 창피하다고(사례 9)”

6) 결과

근거이론에서의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상호 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통해 ‘벗어나고 싶음’, ‘인생살이가 그런 것’, ‘앞날에 대한 염려’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살이는 다 별거 없다고 생각하면서 현 상황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몸

이 성치 않은 노인에게 남은 앞으로의 삶은 여전히 두렵고 염려스러운 내일이다.

(1) 벗어나고 싶음

참여자들은 쪽방촌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벗어나 조그만 임대아파트로의 이주를 위해 현재의 생활을 참고 견디기도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일도 하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노인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수급자격과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을 알고 있다. 잠시 몸 상태가 좋을 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료한 일상을 버티는 수밖에 없다.

하위범주 1. 돈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음

“처음에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그때 문제가, 처음에 2006년도 5월 달에 자립해가지고. 그 때 내가 28만원 받았어요, 생계비를. 그런데 매년 뭐 정부에서 3.4, 3.8% 이렇게 물가에 따라서 인상을 해주잖아요? 그러가지고 차츰차츰 올라간 건데. 그래서 지금은 45만원 받게 된 건데. 처음에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28만원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도저히 못해가지고, (임대)아파트, 기회가 있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모을 수가 없어. 28만원 가지고. 그때는 쪽방도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3년 지나가지고 쪽방을 이용하게 되고 이러니까,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답답하고 해서 참아야죠(사례 9)”

하위범주 2. 일하고 싶음

“노가다는 몸이 안 좋아서 어렵지만 텃밭 같은 거는 여럿이 가서 잠깐 하고 물 줄 것 있으면 물주고, 심을 것 있으면 심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사례 8)”

“우리 수급자들은.. 뭐든지 좀 하고 싶고 또 그냥 수급자라서 어디 가서 일도 못하게 하고 또 뭐 하나씩 짊어져서 나온다 하고. 수급자들이야 뭐.. 정부에서 나온 돈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그래요. 그냥 안 좋아(사례 6)”

(2) 인생살이가 그런 것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 여정을 반추해볼 때 후회도 좌절도 많았지만 인생에 대해 달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압담한 현실에 낙담만하는 게 아니고 극복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하위범주 1. 그냥 살음

“산다고 해서 피해줄 건 뭐가 있겠어. 나도 남한테 절대 피해 안주고 세상 그렇게 살아. 나 배고프다고 어디 가서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겠나? 안주지(사례 1)”

“어려운 걸로 말하면 말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냥 사는 거지(사례 3)”

하위범주 2. 극복해 나가는 것임

“그런데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은 없어요. 나아질 수가 없는 게. 부족한 게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자기가 이런 데 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극복을 해야지(사례 9)”

(3) 앞날에 대한 염려

노년기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앞날에 대해 여러 가지로 걱정되기도 한다. 죽고 싶지만 살아있는 목숨을 끊지 못해 그냥 사는 것이고, 또한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수심이 가득하다.

하위범주 1. 죽지 못해 사는 것임

“그전에는 때가되면 배가 고프는데 요즘에는 습관이 돼서. 그래서 역전에 가면 밥을 해 주드라고. 그렇게 사는 거요. 그러니까 못 죽어서 사는 거여(사례 3)”

하위범주 2.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줘요. 돈이 없다고 치료를 중단했어. 언제 갈지 모르니, 눈을 깨면 오늘도 사는 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여(사례 13)”

4. 핵심범주와 이야기 윤곽

본 연구에서 쪽방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남성 노인의 삶의 과정에 대한 핵심 범주는 ‘삶의 굴곡을 거치며 고립된 곳에서 살아가기’이다.

쪽방거주 남성노인들 대부분은 젊어서 남들처럼 일도 하고 결혼도 해서 소박하지만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원치 않게 다가온 경제적 위기상황과 다양한 이유로 직면하게 된 가족해체..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절망가운데 방황하며 이전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갖추지 못한 쪽방에 장기 거주하게 된 것이다.

이들에게 쪽방은 등을 붙이고 잠을 잘 수 있는 자신만의 개인공간일 뿐이다. 더위를 식히고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가족의 정을 나누며 휴식하는 장소는 더욱이 아니다. 아침마다 눈이 떠지면 길거리로 나아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시혜로 허기를 채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기웃거리며 배회할 때도 있다. 영양상태도 열악한데다가 만성질병으로 인한 통증과 거동의 불편함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때로는 현재의 처지를 비판하며 술을 의지해 외로움도 분노도 몸의 고통도 잊어보려 한다. 간혹 기력이 남아 있어 몸 움직이며 생산적인 노동을 하고 싶어도 수급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이다. 그저 살아 있는 목숨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생각 속에 근근이 버티며 살아갈 뿐이다. 쪽방거주자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시선도 편치만은 않다. 이곳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고 불편한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가끔씩 정말 이상하고 나쁜 사람도 사는 것 같아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생각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볼까 생각해보지만 지금으로서는 갈 수 있는 형편도 못된다.

그렇다고 지금 생활이 절망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쪽방에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일일이 도움을 주고 관심 가져주는 기관과 봉사자들이 있어 많은 위안이 되고 있다. 또한 오랜 동안 살다보니 아프거나 힘들 때 가족처럼 나를 지켜주고 챙겨주는 이웃들도 있어 이들과 정을 나누고 의지하면서 쪽방에서의 삶은 더욱 익숙해지고 새로운 고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간혹 동네의 문제 해결사와 중재자로 역할 하는 등 쪽방에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도 하면서 자신의 실존적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경험도 하게 된다. 긴 시간동안 많은 좌절과 굴절을 경험하면서 인생에 대해 지혜를 터득하였고 살아있는 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현실은 여전히 편안하게 맘 놓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노령의 성치 않은 몸과 건강상태는 늘 죽음을 준비하고 염려하게 한다.

5. 쪽방 장기거주 남성 노인의 유형구분

본 연구를 통해 쪽방에 장기 거주하는 남성노인들의 유형을 포기형, 만족형, 노력형 등 3가지로 도출되었다.

1) 포기형

이 유형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 상태인 경우이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빈곤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자신들의 삶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주변의 지지체계들의 도움과 쪽방의 문화와 이웃들에게 익숙해져 있다. 이들은 적당히 이웃과 의지하고 어울리며, 자신의 삶을 근근이 이어나간다. 특히 이들의 자포자기 상태는 그들의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데 만성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심지어는 심각한 질병으로 삶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은 죽을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사례 3, 7, 13 이 해당된다.

2) 만족형

이 유형은 그런대로 완전히 쪽방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유형이다. 부족함이 많은 쪽방 생활이지만 큰 욕심 없이 지금의 삶이라도 그냥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쪽방의 삶을 제2, 제3의 고향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이들 역시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사례 1, 4, 5, 6, 9, 10, 12, 14 가 해당된다.

3) 노력형

이들은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유형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쪽방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어 타자로서 쪽방 거주인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이웃들과의 지지체계보다는 오히려 복지체계에 대한 교감의지가 강하고 노동에 대한 욕구도 크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사례 2, 8이 해당된다.

다음 <표 4-3>은 쪽방 장기거주 남성 노인의 유형별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의미범주들에 대해 3가지 유형별로 어떠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4-3> 쪽방 장기거주 남성 노인의 유형별 특성

	포기형	만족형	노력형
위기가 찾아옴	강	강	강
가정파탄	강	강	강

	포기형	만족형	노력형
오갈 데가 없음	강	강	강
하루하루가 지옥임	강	강	강
골병이 났음	강	강	중
술로 살음	강	강	강
목구멍이 포도청	강	강	강
국가 보조를 받음	강	강	강
사람 사는 데가 아님	강	상	강
내 처지에 맞는 곳	강	강	강
왔다 갔다 함	강	강	강
몸이 성치 않음	강	강	강
도움에 감사함	중	강	중
어려울 때 의지함	중	강	중
고향이 되 버림	중	강	중
동네의 파수꾼	중	강	약
떠날 수가 없음	중	강	약
의지 되는 이웃들	중	강	약
스트레스 풀기	중	강	중
뜯어먹는 사람들	중	중	강
인식이 안 좋음	강	중	강
돈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음	중	중	강
일하고 싶음	중	강	강
그냥 살음	강	중	약
극복해 나가는 것임	약	중	강
죽지 못해 사는 것임	강	중	약
건강이 안 좋음	강	중	중

6. 쪽방 장기 거주 남성 노인의 쪽방유입과정 분석

1) 혼돈 단계

쪽방거주 남성노인들은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다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위기로 빗쟁이가 찾아오고,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까지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다. 이들은 경제적 위기 뿐 아니라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절망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심각한 경제적 위기상황과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오갈 데가 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고, 결국 극빈층의 수령으로 빠져들었다.

2) 자포자기 단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도망치듯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 때로는 길에서 노숙으로, 혹은 쉼터에서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간다. 한때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도 해보았지만 건강상 더욱 치명적인 문제만 남기도 하였다. 사는 것이 지옥처럼 여겨질 때 이를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다가 견딜 수 없는 맘에 극단적인 자해를 시도하기도 한다. 결국 자신을 인생의 낙오자로 단정 짓고 절망 속에 빠져 지낸다.

3) 익숙해짐 단계

참여자들은 쪽방에 거주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의 어려운 금전적 상황으로는 쪽방을 벗어날 수도 없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쪽방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어서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회한다. 하지만 이들은 어렵고 힘들 때 이웃들과 의지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 참여자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쪽방이 열악하지만, 그곳의 삶에 익숙해지고 정이 들어 또 다른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된다. 또한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중재하기도 하는 등 쪽방촌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편안하지만은 않다. 적응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 몸이 성치 않아 하루하루가 버겁고 고통스럽다. 일부는 어떻게든 이곳에서 벗어나고자 현재의 생활을 참고 견디고 있으며, 또 일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수급자로서의 제약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4) 성찰의 단계

참여자들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도 하고 좌절도 해보지만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라며 달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암담한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노년기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앞날이 염려스럽다. 죽고 싶지만 살아있는 목숨을 끊지 못해 그냥 사는 것이고, 또한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걱정스럽기도 하다.

제5장 결론

한국사회는 G20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 국가성장의 중흥기를 맞고 있지만, 빈곤문제는 여전히 쉽게 풀지 못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쪽방 거주 노인들은 어느 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후 노년기를 맞게 되고 빈곤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왜 이들이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쪽방에 거주하며 지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일차적인 연구의 목적이다. 쪽방촌의 문화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현상으로 볼 수 있고,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문제일 수 있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모든 사회적 지지체계를 등진 채 가장 저렴한 주거공간인 쪽방을 찾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쪽방에 거주하면서 사람 살 곳이 못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쪽방에 체류하고 있다.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삶에 대한 목적의식 부족의 문제인지 혹은 사회구조적 문제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 탓인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쪽방에 거주하는 빈곤층 남성 노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이들이 빈곤층이 되는 과정과 열악한 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원인들에 대해 심도 있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역사(驛舍) 인근 쪽방에서 거주하는 남성 노인들의 주관적 관점에 근거하여 이들의 삶의 여정과 경험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자들이 쪽방에 이르는 첫 상황은 ‘오갈 데가 없음’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한다. 빚쟁이들이 쫓아오기도 하고 카드회사에서 협박전화를 받는 처참한 상황, 그렇다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돈도 이미 가져다 써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처지가 못 되고 얹친 데 겹친 격으로 부부불화나 사별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절망적 상황에서 이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길거리에서 혹은 쉼터에서 근근이 생활을 이어나가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생각 속에 간신히 살아가며,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일자리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만성적 질환이다. 또한 이들은 현재 처한 상황을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해 살아보지만 건강상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참여자들은 쪽방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곳은 사람이 살 데가 아니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운 금전적 상황으로는 쪽방을 벗어날 수 없는데 이들에게 정부에서 주어지는 생계급여는 한 달을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정도 밖에 안된다. 쪽방과 쪽방거주

인에대한 주변인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곤 하지만 그래도 쪽방에 살아가면서 복지기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또한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정을 나눈 이웃들을 의지하면서 또 다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쪽방이 여러 가지로 맘 불편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삶에 익숙해지고 이웃과 돈독한 정을 쌓게 되면서 새로운 마음의 고향으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또한 일부 참여자의 경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재자로 나서는 등 쪽방촌의 파수꾼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른다. 특히 주변이웃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새로운 지지체계를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나름 찾으면서 현실에 적응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맘 놓고 지낼 만큼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간혹 참여자들을 갖은 방법으로 이용해먹으려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 때문에 가끔은 힘들다. 또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몸이 성치 않아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들은 쪽방촌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벗어나 조그만 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생활을 참고 견뎌 나가지만, 수급자인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에 대한 제약 때문에 미래를 기약하는 계획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간다. 일부는 그들의 지난 인생을 반추하며 후회도, 좌절도 하게 되지만 ‘인생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달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고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현실의 암담한 삶에 주저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 보기도 한다. 노령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피할 수 없는 염려거리이다. 죽고 싶어도 붙어 있는 목숨 끊지 못해 그냥 사는 것이고, 여기 저기 아프고 불편한 몸 때문에 어찌될지 몰라 걱정이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쪽방 거주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더 나아가 성숙된 삶의 자세를 갖기도 하는데, ‘단절된 지역에서 홀로 살아가기’라는 중심현상과 조건, 전략, 결과들을 기반으로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참여자들은 각각 포기형, 만족형, 노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쪽방 거주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 결과는 혼돈단계, 자포자기 단계, 익숙해짐 단계, 성찰 단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함의는 첫째, 쪽방 거주 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노인들의 삶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허소영(2010)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의 관점으로 현재의 삶에 대한 풍부한 이해 뿐 아니라, 이

들이 지속적으로 쪽방에 거주하게 된 삶의 과정을 조명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특히 빈곤노인에 대한 연구에서 단순한 재가 남성노인이 아닌 쪽방이라는 독특한 거주지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남성노인의 삶의 과정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쪽방 거주 노인들의 작용/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쪽방 거주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차적 요인은 개인적인 것으로서 이들의 많은 수가 젊은 시절부터 막노동을 해왔기 때문에 만성화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보호대상자로서 받는 진료체계에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질병치료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건강권으로서의 의료서비스 지원방식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주변 이웃과의 좋은 관계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이웃과 동화되지 못하는 이들의 고립은 스스로에게 고통의 요인일 수 있으므로 지역네트워크 등을 통한 연대가 필요하다.

셋째, ‘포기형’, ‘만족형’, ‘노력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을 분석해 냄으로써, 이들을 사정하여 실천적으로 개입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포기형’은 개인적 요인으로서의 무능이나 무기력함으로 인해 빈곤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아예 빈곤에 대한 탈출노력이 없거나, 혹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을 직면하여 포기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청년기 혹은 장년기에 이미 빈곤의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물질적 보조 뿐 아니라 자활에 대한 조기교육 및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후자의 경우는 수급기준의 문제라는 정책적인 부분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도 질병 등의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완전한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근로빈곤에 속한 이들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고착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제도상의 문제로서 고용제도 뿐 아니라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이러한 ‘포기형’의 참여자를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만족형’ 역시 쪽방의 삶에 적응해 나가는데 더 큰 욕심 없이 지금의 국가 보조나 사회적지지 시스템에 감사하며 더 많은 보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역시 ‘포기형’과 비슷한 양상이지만 내적으로 성숙해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력형’은 쪽방에서 벗어나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은데, 특히 노령이고 성치 않은 몸이지만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시스템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넷째, 쪽방에 거주하게 된 남성노인들의 경험에 대해 ‘혼돈단계’, ‘자포자기 단계’, ‘익숙해

집 단계’, ‘성찰 단계’ 등 네 가지 단계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서 이들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가를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쪽방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대한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 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혼돈단계’와 ‘자포자기 단계’를 거치면서 이들은 자살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의 상황적 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기의 쪽방거주자들에게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익숙해짐 단계’에서는 쪽방의 삶에 적응해 가는 단계로 현재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이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순한 익숙해짐을 벗어나 자신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성찰 단계’로의 발돋움을 돕기 위해서는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 욕구에 대한 개입에서 보다 실존적 가치를 함양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집단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 있는 실천적 개입을 통해 단순한 머무름으로서의 ‘만족형’이 아닌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켜나가는 ‘노력형’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함의를 통해 얻은 쪽방 거주 남성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일을 할 경우 수급자로서 받는 수급비를 온전히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제도는 살아있어도 몸이 점점 쇠퇴해짐에 따라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삶의 과정에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주어서, 삶의 마지막 길에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앞으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엄격한 법적인 기준의 적합성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 1인 수급비로 만성화된 질병을 갖고 있는 이들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아예 쪽방촌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노동 소득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쪽방 거주 노인들을 위한 소일자리 창출이다. 일부의 경우는 2종 수급자이거나 혹은 적은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노년기의 특성상 신체적 문제 등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많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루 종일 주변인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 밖

에 소일거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소일자리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더욱 기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 무기력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는 쓸쓸한 인생노정을 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미 지역 울타리 내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 의식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조직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겠다. 장기적으로 소일거리를 통해 의미 있는 소득창출이 가능하다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전 쪽방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노인들 가운데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쪽방으로 유입과정과 그 안에서의 삶의 경험에 대해 근거이론의 관점에서 탐색되었다. 따라서 타 지역의 모든 쪽방 거주 남성노인의 경험을 논하기에 많은 한계점을 갖기에 향후 다양한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앵글을 사용한 분석방법을 통해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미령(2008). 쪽방거주자의 스트레스 원과 극복자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126-151.
- 김선희(2001). 쪽방거주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원승욱·김소임. 2002. 쪽방사람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권지성(2008). 쪽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60(4), 131-156.
- 권구영·김성현·서미경(1999). 노숙자의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8, 25-46.
- 안준호·홍진표·유제춘·박종익·이철·한오수(2001). 도시노숙자의 주요 정신장애에 관한 역학연구, 신경정신의학, 40(12), 193-202.
- 노병일·윤경아(2004).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다운샘.
- 문정우(2007). 거리노숙탈피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 쪽방생활자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서종균(2000). 한평 남짓 쪽방 거주민의 실태, 복지동향, 27, 6-13.
- 서종균(1999). “쪽방지역과 쪽방사람들”. 공간과사회. 219~256.
- 석상훈·김현수(2012).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분석-생애 근로이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5(3), 74호, 99-1245.
- 송민경(2004). 쪽방노인의 생활실태에 따른 정책 제안 연구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석원(2012). 적극적 노년생활과 세대 간 가족관계-노인일자리사업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1(1), 337-361.
- 이소정(2006). 판자촌에서 쪽방까지-우리나라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9, 167-208.
- 이준호(2001). 서울시 쪽방지역의 존속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민철(2011). 쪽방상담소의 역할과 과제 쪽방상담소의 역할과 과제, 도시와빈곤 제95호, 8-25.

장준배(2002). 쪽방거주자들의 사회적 연계단절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한국도시연구소(2000). 쪽방지역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정책개발, 보건복지부·서울시.

허소영(2010). 쪽방지역에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삶의 경험, 한국노년학, 30(1), 241-260

홍인옥 외. 2005. 쪽방거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 한국도시연구소.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 CA: Sage. 질적연구방법론. 조흥식의 3인 역. 학지사.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Strauss & Corbin(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i; Sage Publications.

Wong, Y. I. and Pilliavin, I. (2001). Stressors, Resources, and Distress among Homeless Person: Longitudinal Analysi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2, 1092-1042.

제 3 편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의 쪽방촌 거주 경험과 그 의미

이현주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본 연구¹⁾의 목적은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의 쪽방촌 거주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총체적 문화기술지의 방법을 통해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의 쪽방촌 거주 경험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이들의 삶을 탐색해보았다. 연구의 결과,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이 쪽방촌에서 거주한 삶과 경험에서 드러난 중요한 범주는 ‘생계: 쪽방촌 유입의 단초, 쪽방촌 잔류의 단초’, ‘관계: 단절, 형성’, ‘이방인: 경계(警戒)와 어울림, 경계(境界)와 소외’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실천적·학문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1) 본 연구는 2012년 ‘한국노년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액티브 에이징: 안전의 축’ 분야에서 발표글로 선정되어 선(先)발표된 글이다.

제1장 연구의 배경

쪽방촌. 빈곤의 극한으로 몰린 사람들이 가장 최후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생애 마지막 거처로 이미지화된 지 오래이다. 일반적으로 쪽방촌은 큰 역(驛)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역들에는 노숙인들이 상주하고 있어 쪽방촌에 사는 거주민들은 흔히 노숙인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권지성, 2008). 그러나 쪽방촌에는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하는 거주민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4-50년을 살아오면서 쪽방촌과 인생의 고락을 함께해 온 사람들, 즉 쪽방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거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조사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가 전무한 그들, 쪽방 관리인에 대해 탐색하고자 고안되었다.

쪽방은 1960년대 사창가를 비롯해 여관·여인숙, 용도 폐기된 축사와 공장의 기숙사, 그리고 최근 현대판 쪽방으로 불리는 고시원까지 다양한 기원을 갖는다(김선미, 2011). 이에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의 큰 역을 중심으로 밀집해있는 여관·여인숙 건물들이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낙후가 되면서 번성했던 임대업의 본래 기능보다는 탈노숙한 사람들이나 빈곤층들이 거주하는 쪽방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쪽방촌이라 불리우는 주거 취약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관이나 여인숙, 허름한 판자집 등에는 주인이나 관리인들이 함께 상주하면서 세입자와 건물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쪽방 관리인들은 해당 지역이 쪽방촌이라 불리우기 훨씬 이전부터 그 지역에서 살아온 여성들로, 노인이 된 현재, 쪽방 건물에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요약컨대 이들은 극빈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 노인으로 빈곤과 여성, 독거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존재에 대한 인식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상기하였듯 쪽방촌의 이미지가 노숙인들과 잠재적 노숙인들의 불안한 거처로 굳어지면서 쪽방 지역과 그 주민에 대한 연구는 노숙인 문제와 거주자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접근하여 쪽방촌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층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송민경, 2005).

이와 같은 인식을 반영하듯 지금까지의 쪽방 연구는 쪽방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노병일·윤경아, 2004)나 쪽방 지역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정리한 연구(이준호, 2001; 한국도시연구소, 2002; 이소정, 2006), 쪽방 거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언한 연구(김효진, 2009)등의 내용에 국한된다. 즉 그동안의 쪽방 연구는 쪽방촌의 형성 과정과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쪽방촌의 주거 환경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쪽방 거주민들을 위한 지원, 특히 쪽방 거주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허소영, 2009) 중장년 남성들

의 보호·근로·자활을 통한 탈빈곤을 유도하는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 등을 제언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조사와 연구들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쪽방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고²⁾ 쪽방상당소나 홈리스지원센터등과 같은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자원과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쪽방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생활의 영역별로 범주화된 결과를 보여줄 뿐이며(권지성, 2008) 특정한 대상의 생활 양태나 복지서비스 관련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삶을 살펴볼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쪽방촌에 거주하지만 그간의 조사나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삶을 탐색하는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먼저 송민경(2005)은 쪽방에 거주하는 중장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동안의 연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였고 권지성(2008)은 그의 연구에서 다양한 쪽방 거주자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일상생활과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허소영(2009)은 쪽방에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보다 다양한 쪽방 거주민에 대한 이해의 기틀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연구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합하는 개별화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노정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한 연구들에서도 각기 다른 대상인 노인이나 거주민을 통합하였거나 연구의 초점이 남성 노인에 국한되어 있어 쪽방에 거주하는 또 하나의 집단인 여성 독거 노인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 독거 노인의 경우, 그동안 노년학과 노인복지학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그 주제가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연구적 필요성에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노인 인구의 여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학계에서는 이들 여성 노인이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젠더와 ‘고령’이라는 연령의 이중위험(double jeopardy)에 놓여있음을 제기함으로써 여성 노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허소영, 2009). 다시 말해, 노인에 관한 담론이 사회적 취약 계층인 여성에 집중되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 독거 노인이라는 주제는 더 이상 연구의 불모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2) 이와 같은 예로 최근 들어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이 발표되면서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1만 1천여 가구에 대해 1인 가구의 경우, 원룸형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가족단위의 경우, 다가구임대주택 혹은 국민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등 거주민에 대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김선미, 2011).

노인이나 장애인 등 한 범주로 통합할 수 있는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특성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성(gender)이나 연령, 처한 환경에 따라 집단마다 개별적이며 고유하기 때문에 같은 여성 독거 노인이라 할지라도 쪽방촌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 노인들이 가진 특성은 서로 상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연구되어온 프레임을 통해 쪽방촌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 노인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쪽방촌에 거주한다는 개별성과 관리인이라는 고유성이 부각되지 않아 이들의 독특한 삶이 조망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에 노인의 목소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노인의 삶이 연구자나 다른 연령 집단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노인 자신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현재의 시점에서 되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작업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기초적인 탐색도 전무했던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의 쪽방촌 거주 경험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이들의 삶을 탐색해보도록 하겠으며 연구의 현장은 대전역에 소재한 쪽방촌에 집중하였다. 또한 그들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기에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인 문화기술지의 방법을 통해 정보 제공자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읽어내고자 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와 자료를 통한 쪽방 관리인에 대한 고찰

쪽방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였으나 사실 존재의 역사는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다. 한국도시연구소(2000)에 의하면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과 정착,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진행된 도시화의 영향으로 대략 40년에서 50년 이전부터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

일반적으로 쪽방은 약 0.5평에서 1평 정도의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작은 방’으로 알려져 왔으나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각기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최근 전국쪽방상담소 협의회(2009)에서 최저주거기준, 점유 형태, 공용설비, 가구, 경제적 상태를 모두 반영하여 규정한 개념으로서의 쪽방은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보증금 없이 일세·월세·사글세를 지불하는 부대시설(세면·취사·화장실 등)이 없는 방으로서 단신·가족, 취약·주거불안계층이 거주하며 수급권자나 비정기적인 일자리와 건설일용직과 같은 이직이 강하며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주거 공간”으로 정의된다. 또한 이러한 쪽방은 사창가를 비롯해 여관·여인숙, 용도가 폐기된 축사와 공장의 기숙사, 그리고 최근 현대판 쪽방으로 불리우는 고시원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와 함께 ‘쪽방촌’이라 불리우는 쪽방 밀집 지역은 쪽방이 밀집해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 2000년에 실시된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대구, 대전의 특정 지역이 쪽방이 밀집된 형태의 쪽방촌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후 2007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 일부가 밀집 지역, 대구와 부산은 분산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김선미, 2011에서 재인용)⁴⁾.

3) 사실 쪽방 형성의 역사에 관한 의견도 분분하다. 본문에 기술한 바와 같이 쪽방의 역사를 길게 보기도 하지만 혹자는 1990년대 이후 영구임대주택과 빈곤층 주거지의 다변화 단계에서 등장하였다고 보기도 한다(이소정, 2006).

4) 서울의 경우 인접한 중구 남대문로5가동과 용산구 동자동을 합하여 한 지역으로 본다면 모두 4개 지역에, 대구에는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개 지역에, 대전에는 규모가 큰 2개 지역에 쪽방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권지성, 2008).

〈표 2-1〉 쪽방설치수와 거주민 현황

기관명	건물(동)		쪽방수		생활자수		수급가구 비율	장기거주 비율
	08.3	09.8	08.3	09.8	08.3	09.8		
영등포쪽방상담소	93	67	541	541	578	510	68.3%	83.7%
남대문지역상담센터	45	40	761	785	749	640	45.4%	80.8%
용산쪽방상담소	48	45	1033	975	939	791	45.8%	98.7%
종로쪽방상담소	90	87	771	781	752	668	32.5%	71.5%
동대문쪽방상담소	58	58	550	505	353	319	27.3%	95.6%
인천쪽방상담소	101	256	546	341	546	667	27.9%	100.0%
대전쪽방상담소	382	375	1,503	1,498	900	900	86.1%	94.4%
대구쪽방상담소	109	125	1,246	1,370	813	791	52.5%	-
부산진구쪽방상담소	28	22	467	295	370	283	57.2%	86.5%
부산동구쪽방상담소	34	44	368	520	201	140	74.3%	-
총계	988	1,119	7,786	7,611	6,201	5,709	-	-

출처: 김선미(2011). 쪽방 등 저렴거처에 대한 지역재생적 단초. p. 478

한편 이러한 쪽방건물은 5-10개의 쪽방이 하나의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관리인⁵⁾이 상주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리자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⁶⁾ 첫째는 건물주로서 관리인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 둘째는 주인은 별도로 있지만 한 층 혹은 여러 개의 방을 관리인이 전세로 들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월세 임대업을 하는 경우, 셋째는 주인은 별도로 있고 자신이 생활할 수 있는 방 한 칸 정도에 무료로 살면서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이다. 특히 세 번째의 경우에 생계형 관리인⁷⁾이 많으며 건물 관리를 위해 주인으로부터 일임된 일들, 이를 테면 세입자를 위한 방 청소, 세탁일 등의 여러 가지

5) 이들을 운영자로 통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 공식적인 연구(2007년 종로구 쪽방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워크숍에서 운영자에 대한 조사가 수행된 바 있지만 공식적으로 출판된 바는 없음)에서 이들을 처음 언급했던 김선미(2011)는 ‘운영자’라는 표현으로 통칭하였는데, 연구자는 운영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지, 관리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데 고심하였다. 이에 운영의 어의는 ‘일이나 조직, 기구 따위를 운용하여 경영함’인 반면 관리의 어의는 ‘시설이나 물건 또는 심신의 유지와 개량을 꾀함, 어떤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관할함’이다. 즉 ‘운영자’와 ‘관리자’의 용어는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달라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인식론적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연구를 위해 만난 이들의 대부분은 주인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혜택-주거 임대료 제외, 소정의 수익금 배분 등-을 제공받으면서 ‘맡겨진 일’을 하기 때문에 운영자라는 표현보다는 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리라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표현상의 차이는 상기한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자가(집주인)와 반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인 관리인을 별도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6) 이는 연구자가 쪽방 관리인들과 쪽방에 거주민들을 심층 면접하고 장기간동안 관찰한 후 구분한 것이므로 보다 명확한 개념의 정의와 합의를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7) 여기서 생계형 관리인이란 연구자가 임의로 붙인 이름이다. 즉 생계를 위해 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물론 모든 유형의 관리인이 생계를 위해,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본문에 기술한 생계형 관리인은 관리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일을 대행해주거나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이를 주인에게 입금하는 등의 일들을 하게 된다. 또한 첫 번째의 경우에도 생계형 관리인이 많은데 과거에 생계를 위해 여관 건물을 매입하였지만 그 지역이 쪽방촌으로 전락하고 재개발이 요원해지면서 처치 곤란의 건물을 떠안은 주인이 되어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생계형 관리인들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중요한 이해 당사자이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쪽방촌의 역사와 생을 같이한 경우에 속한다.

〈표 2-2〉 쪽방상담소가 파악하고 있는 건물 수와 관리자의 평균운영방수

기관명	건물 수	쪽방 수	평균운영방수
영등포쪽방상담소	67	541	8.1
남대문지역상담센터	40	785	19.7
용산쪽방상담소	45	975	21.7
종로쪽방상담소	87	781	18.2
동대문쪽방상담소	58	505	14.9
인천쪽방상담소	256	341	1.3
대전쪽방상담소	375	1,498	4.0
대구쪽방상담소	125	1,370	11.0
부산진구쪽방상담소	22	295	9.0
부산동구쪽방상담소	44	520	20.8
총계	1,119	7,611	12.9

출처: 김선미(2011). 쪽방 등 저렴거처에 대한 지역재생적 단초. p. 475

한편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어 이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11년에 전국쪽방상담소 협의회에서 실시했던 한 조사⁸⁾에 따르면 이러한 관리인들은 대부분이 평균연령이 66.6세인 여성(전체의 75.2%)으로 쪽방의 관리 기간은 평균

8) 전국쪽방상담소 협의회는 2011년 당시 설치되어 있는 10개의 쪽방상담소를 통해 해당지역의 운영자 1/3을 목표로 10개 이상의 방을 관리(운영)하는 사람들을 주된 조사대상자로 설정하고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직접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였다(김선미, 2011).

〈참고〉 운영자 조사 항목

대분류	세부항목
경영자 및 관리자 개인특성	연령, 성, 운영상 자격(집주인 or 임대-전세 혹은 월세), 주소지 소재 운영기간, 운영동수 및 방수
건물 형태	건물형태, 화장실 유무 및 형태(재래식 or 수세식), 취사공간여부, 난방방식(전기 패널-심야전기 or 기름 or 연탄 etc), 난방기동 여부, 수도 사용 방식
운영현황	주된 운영 방식, 운영 시 어려움, 공실발생 시 대처 방안, 월운영비(공과금 등), 지속운영여부
개선의 필요성 및 내용	주거환경 및 지역개선의 필요성 인지 여부, 개선 시 필요한 점, 주거환경 개선 시 참여 의사, 환경 개선 주도권
지역 인식	지역에 대한 인식, 세입자에 대한 인식 등

17.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쪽방을 관리하는 데에서 기인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빈 방이 자주 발생함’과 ‘고령으로 운영이 어려움’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운영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생계를 위해 다른 일의 선택이 불가능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공실 발생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는 ‘건물이 노후함’, ‘거주자들의 임대료 연체’ 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이나 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들의 삶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제3장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총체적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활용⁹⁾하여 쪽방촌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 노인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 노인에 대해 알려져 있는 바가 거의 없고 특히 쪽방을 관리하는 이들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며 본 연구의 목적이 객관적인 양상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문화기술지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는 쪽방촌이라는 한정된 특정 집단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론의 선택은 쪽방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가난이나 홀로 살기가 개인 내적인 경험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체계 내에서 상호 영향을 받으며 기능하고 있어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이들의 일상생활에 몰입된 참여관찰을 통해 좀 더 입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행 연구의 제언(허소영, 2009)과 맥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기술지 중에서도 전통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총체적 문화기술지 방법¹⁰⁾을 선택한 이유는 연구의 우선적인 관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패턴과 그 이면에 있는 의미 구조의 패턴을 발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권지성, 2011).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특징은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을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 집단 내에서 연구자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관찰과 면접을 수행하면서 그 집단 및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언어, 상호작용의 의미 등을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9) 문화기술지의 연구 전통은 배경 사상과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의 층위에 따라 총체적/기호학적/행동적 패러다임으로, 기본관점과 구체적인 연구 절차에 따라 총체적 문화기술학/의사소통의 문화기술학/인지인류학으로, 혹은 총체적 문화기술지/신문화기술지/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기술의 초점과 기술 양식에 따라 심리동학적/사실적/외재 중심/사건 중심의 문화기술지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조명옥, 2003에서 재인용).

10) 총체적 문화기술지는 인류학의 가장 일반적인 연구 전통으로 문화의 제요소는 하나로서의 전체문화에 연관되어 있고 문화는 인간의 삶에 순기능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 전통은 반복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 일반화에 근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술과 해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자의 세계관과 학제, 자질 등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위험이 있다(조명옥, 2003).

1. 연구 현장

특정 지역사회를 현장으로 정하고 그 문화를 탐구하는 총체적 문화기술지 방법은 공식화된 연구 절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권지성, 2008). 이에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뚜렷한 연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수시로 연구 현장에 방문하여 주민들을 관찰하고 그들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연구 물음을 발전시켜 나갔다. 연구자가 방문하였던 연구 현장은 대전시 동구에 소재한 쪽방촌 중, 대전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삼성동이었다. 그 지역을 연구의 현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자들인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이 왼쪽에 위치한 원동보다 삼성동에 많이 거주할 뿐 아니라 관련 기관, 예컨대 쪽방 상담소, 홈리스지원센터, 희망진료소, 은총섬김교회, 새나루공동체 등이 소재해 있고 이러한 기관들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여 삶과 문화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2. 정보 제공자

본 연구의 주요 정보 제공자는 총 9명의 여성으로 쪽방촌에 거주하면서 쪽방을 관리하고 있는 독거 노인이다. 본 연구는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의 쪽방촌 거주 의미라는 뚜렷한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를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은 일상생활의 다양성과 그것이 당사자에게 갖는 의미를 그들의 맥락 속에서 심도 있는 관찰과 이해를 하고자 하기에, 연구 참여자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정보 제공자를 선정하였다.

사례 선정의 기준은 ① 쪽방촌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일 것, ② 쪽방을 관리할 것, ③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일 것이었다. 이러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자들을 연구자가 선택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동의한 이들이 최종적으로 정보 제공자가 되었다. 문화기술지에서 가장 생산적인 관계는 완전히 문화화된 정보 제공자¹¹⁾와 완전히 문외한인 연구자 사이의 관계이다(Spradley, 1979). 이에 본 연구의 정보 제공자는 쪽방촌에 평균

11) 완전히 문화화된 정보 제공자란 자신의 문화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가리킨다.

30여 년을 거주한 자들로 완전히 문화화된 정보 제공자라 할 수 있고 연구자는 쪽방촌에 거주한 경험이 없는 완전히 문외한이므로 생산적인 관계라 할 수 있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비밀보장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원했던 정보 제공자들을 위해 쪽방촌에 거주한 평균 기간이 30여 년 정도라는 점¹²⁾을 제외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도록 하겠다¹³⁾.

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주요 정보 제공자들과의 심층 면접과 관찰을 통해 수집하였다.

1) 관찰

연구자는 2012년 2월부터 쪽방 거주민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 조사¹⁴⁾를 실시하고자 대전역 인근에 소재한 쪽방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였다. 처음에는 연구보조원 1인이 동행하여 2인이 1조가 되어 연구 현장에 방문하였고 신뢰 관계가 형성된 후부터는 연구자 혼자 현장에 방문하여 주민들과 친분을 쌓았다.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한 주요 정보 제공자들과의 심층 면접이나 관찰을 위해 연구자가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주민들은 조금의 일상 생활을 거리낌없이 있는 그대로 노출하였고 연구자는 내부자적 관점을 가진 현지인화된 이방인으로 ‘잠길’ 수 있었다¹⁵⁾. 그리고 자료의 분석이나 글쓰기를 할 때에는 외부자적 관점으로 돌아와 해당 문화를 해석하였다.

2) 심층 면접

12) 본 연구에 참여해 준 노인들 중 이 지역에 가장 짧게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26년, 가장 오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50여 년이었다.

13) 이후의 장에서 상세히 기술하겠지만, 쪽방촌 규모가 워낙 작은 데다가 일반 주민이 아닌, 관리인들은 그 수가 매우 적어 몇 명 되지 않으며 현재 이들은 쪽방 임대업과 성매매의 중개료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구나 조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연구자는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타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사항의 기술이나 표로 정리한 내용 등은 생략하기로 하였다.

14) 기초 조사는 대전복지재단의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2-3월까지 1차 조사가 실시되었고 동년 9-10월까지 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1차 조사 기간 동안 직접 조사를 담당하여 그 기간부터 본 연구의 주요 정보 제공자들과 돈독한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15) 문화기술지를 비롯한 질적 연구에서는 흔히 ‘잠긴다’라는 표현을 쓴다(홍현미라 외, 2008). ‘잠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연구자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그 문화나 현상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 완전히 젖을 때까지 잠겨 있는 것으로, 이른바 내부자적 관점을 가진 ‘현지인화 된 이방인’이 되는 것이다(Spradley, 1979).

본 연구를 위한 심층 면접은 2012년 9월 한 달여 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를 위한 집중적인 심층 면접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과 면접한 총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하였듯 연구자는 2012년 2월 이후부터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쪽방촌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¹⁶⁾, 처음부터 본 연구의 주제에 관심을 두고 있던 터라 기회가 될 때마다 수시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들어왔다. 그러는 동안 연구의 주제를 구체화하였고 주제를 확정한 후,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여 9월 한 달 동안 집중적인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정보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질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인식, 의미를 표현하였다. 이는 연구의 주제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 즉 현재의 관심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면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면접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가능한 정보 제공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 면접은 1인 당 1회, 60분~9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정보 제공자의 집, 집 앞 마당 등 정보 제공자가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시행하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면접 시, 매번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고 면접 노트를 작성했으며 의문이 나는 부분은 즉시 물어 곱해 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였고 필요한 경우 재방문하기도 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이슈

문화기술지는 하나의 문화 또는 사회 집단이나 체계에 대한 기술과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연구는 사람들의 매일의 삶에 잠겨서 행하는 참여관찰과 집단 구성원들과의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므로(권지성, 2011) 연구자와 정보 제공자 간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이 사생활 깊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정보 제공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도움을 제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정보 제공자가 자의로 연구에 동참한다 해도 그들과의 장기적인 접촉은 정신적·사회적·실질적인 면에서 많은 권리를 착취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목적을 위해 정보 제공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

16) 연구자는 본 연구의 참여자와 쪽방 주민들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자의 편견을 점검하고 쪽방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홈리스지원센터 대표, 서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실무자, 쪽방촌 및 빈곤, 노인을 연구하였던 연구자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며 쪽방촌의 특성, 쪽방 주민들의 특성 등에 대해 공부하였다.

을 범하지 않도록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 자체가 정보 제공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정보 제공자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의 목적과 의미, 협력성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의 진행과정에 있어 정보 제공자들의 신분 및 신상에 대해 전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을 사용하고 녹음된 정보와 필사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또 정보 제공자가 면담 중 민감한 문제 노출로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정보 제공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정보 제공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담 일자, 시간, 장소를 이들의 사정과 의견을 따랐으며 연구에 참여한 이들에게 작은 보상을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학문 동료, 연구자들과 연구의 내용과 과정을 논의함으로써 정직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담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신뢰성(depend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료와 자세한 연구 과정의 기록들을 감사 가능하게 남겨 놓았다.

5. 자료 분석 방법

전술하였듯 총체적 문화기술지는 공식화된 연구절차가 없다. 때문에 연구자는 분석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폭넓게 사고하고 글을 쓰고자 노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작성하였던 관찰 노트와 녹취록, 쪽방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실무자와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진들과의 대화 시 작성한 메모 등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패턴을 발견하였다.

제4장 연구 결과

본 소절에서는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이 쪽방촌에서 거주한 삶과 경험, 거기에서 드러난 중요한 문화적 의미 등을 정리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그들의 삶을 펼쳤을 때 뚜렷하게 드러난 범주는 다음의 <표 4-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생계’, ‘관계’, ‘이방인’ 이었고 각 개념은 2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다¹⁷⁾.

<표 4-1>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의 삶

범주	하위 범주	
생 계	쪽방촌 유입의 단초	쪽방촌 잔류의 단초
관 계	단절	형성
이방인	경계(警戒)와 어울림	경계(境界)와 소외

1. 생계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에게서 발견된 첫 번째 범주인 생계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쪽방촌에 유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서의 생계, 둘째, 쪽방촌에 잔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서의 생계이다. 이에 전자에서는 쪽방촌 유입의 단초라는 패턴을, 후자에서는 쪽방촌 잔류의 단초라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쪽방촌 유입의 단초

그동안의 선행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에 따르면 쪽방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대개 주거 빈곤에 처한 사람들로서 건설 현장이나 식당 등 일용직에 종사하여 직업 상 거처를 떠돌 수 밖에 없거나 질병 혹은 장애를 가진 빈곤층, 채무나 범죄에 연루되어 임시 거처에 머무르는, 간혹은 노숙과의 경계를 오가기도 하는 사람들이다(한국도시연구소, 2000; 권지성, 2008). 즉 거주민들의 대다수는 생애 끝자락에서 ‘마지막인¹⁸⁾’ 임시적인 거처(수급권자가 되면 장기적인 거

17) 본 연구에서는 개념은 생략하고 범주와 하위 범주만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처로 바뀔 수도 있지만)로서 쪽방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쪽방 거주민들과 달리,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생계, ‘먹고 살기 위해’, 즉 일자리를 구하고자 쪽방촌으로 유입되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독거 노인들과도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들 집단만이 공유하고 있는 뚜렷한 문화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재는 동일한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거주민과 관리인은 쪽방촌에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유입되었다는 것이고 같은 여성 독거 노인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보루로서 쪽방촌을 선택한 노인들과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쪽방촌을 선택한 노인들과도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우 가난했던 시절을 겪으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원하던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한 입이라도 덜기 위해’ 일찍 결혼을 하였으나 그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특이하게도 이들 모두 중매 결혼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결혼을 하던 그 시기는 연애 결혼보다는 가족이나 친지, 이웃이 ‘가야할 때가 되었으니 중신을 서서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가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얼마나 천추의 한이 되는지. 말도 못해. 어디 가서 모르고 답답하면 물을라 하면, 창피스럽기도 하고 모르면 무조건 물어야 되니까는 지금 다 이렇게 늦게 배울라 하니.

거기서 중매결혼해서 여까지 온 거야. 그런게 왜 내가 하루는 그래. 왜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저런 사람을 만났으며, 이런 데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왔냐고 내가. 원망을 말 할 수도 없이 하지요. 그렇지만 뭐해 내 팔잔데.

안타깝게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알콜 중독이거나 ‘바람둥이’ 혹은 빗쟁이거나 무능력하였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다 팔아서 청산하’고 생활 전선에 이들 자신이 뛰어든 수 밖에 없었다.

하도 하도 볍아먹어서. 볍아먹어, 저 가게 할 때. 가게 좀 보라하면 돈 다 감춰갖고 가서 돈 다 써 불고 술 먹고 계집질하고 그러고 들어와 갖고. 담배를 타려면 돈이 없잖아요. 돈 다 갖다 만날 써버리니까. 만날 어서 중당거리고 빌려다가 팔아서 주고, 팔아서 주고, 도저히 안 되겠어. 돈을 못 쓰게 더 볍는 거야. 돈을 못 쓸까 아녀. 맘대로 갖다 쓰다가. 돈을 못 쓰니까 온 식구를 다 털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만날 쳐 붓고. 그래서 난 도저히 못 살것다. 그 주제에 계집질 하면서. 그래서 내가 끝난 거야. 내가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맘 편하게 살다 죽자. 내가 바가지 들고 얻어먹어도 맘 편하게 내가 한번 살아보고 죽을란다.

18) 본 소절부터 작은 따옴표를 처리한 문구는 정보 제공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무능한 남편으로부터 도망쳐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상경해서 대전역에 ‘떨어진’, 혹은 ‘일 자리를 구하려면 큰 역으로 가라’는 조언을 듣고 식구가 줄줄이 대전역으로 ‘올라온’ 이들은 당장의 끼니를 위해 직접 길거리로 나서야 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 이들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새끼 딸린’ 여성이었기 때문에 변변하게 할 만한 일이 없었다. 닥치는 대로 잡다한 일들을 하였지만 별이는 시원찮았다.

아 들(자녀들)은 놔두고 그냥 보따리 장사 막 그냥 별놈에 장사를 다 했지. 아 들은 그냥 사글세에다 놔두고. 이고 땡기면서 옷장사도 했고 뭐 생선장사도 하고, 인삼 장사도 하고 오만잡것 다해봤지. 아 들을 뭐 어떡해. 아 들은 어리고 먹을 건 없고.

온갖 고생을 할 때 한창 역 근방에서 성업 중이던 ‘색시 장사’에 대한 정보를 알음알음 듣게 되었다. 이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정맞춤 직업이었다. 왜냐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여성 주인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고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으며 당시 ‘밤 장사’였기 때문에 낮에 자녀들을 돌보고 살림을 해가며 저녁에 일을 할 수 있는, 게다가 한창 성업 중이라 돈도 꽤 ‘짹짹했기 때문’이다.

대전 와가지고 저 밑에서 인제 조금씩 저 밑에 가면 사거리 있잖아...(생략)...그래 가지고 그랬더니 가만 서서 보니 아줌마들이 (호객 행위하는 것을) 봐라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만 가만히 앉아 이래 꺾어보고 하니까는 좀 알겠데. 그래 저 밑에서 인제 젊은 아줌마 있는데, 할매 있는데, 철독 벽으로 다 할매집이야. 있는데 이층 삼층 그 집 방 이랬었어. 이랬었는데 음, 할머니 내하고 같이 인제 쯤 있으면 내가 청소하는데 데려갈게 그래. 이래 이래 하자하더라고.

밑천 없이 처음 시작한 일은 호객행위나 색시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지만 이는 조금씩 돈이 되어갔다. 당시(1960-70년 대) 대전역은 신도심지가 형성되지 않아 대전역이 중심가였던 탓에 장사가 꽤 잘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때만 해도 하루 몇 만원 뭐, 삼만 원, 이만 원이래 막 벌었어. 여기가 뜯고서는 다리를 놓고, 밤장사가 좀 됐어. (손님이) 많고. 밤에 무슨 야시장 같았어.

국수를 한 채반 삶고. 또 오징어를 물오징어 열 마리를 삶아. 그러고 뭐 거위들도 삶아 먹고. 채반 채반에. 또 그거 뭐여 찐 밥. 찐 밥을 또 말아가지고 채반에다가 또 한 채반 해 놔. 그럼 아가씨들 옛날에 벽적벽적해. 그럼 누구네 집. 그때는 전화도 없었잖아. 누구네 집. 몇 그릇 국수 갖다 주세요. 쟁반 들고.

이렇게 번 돈으로 이들은 먹고 살았을 뿐 아니라 자녀를 키워냈고 어려운 살림을 조금이나마 일으켰다. 그리고 비로소 ‘살게 해 준’ 고마운 이 지역을 ‘제2의 고향’ 삼아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와 같은 이들의 특징은 상기하였듯, 거주민-거주민인 여성 독거 노인 포함-의 쪽방촌 유입 과정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쪽방촌 유입 과정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문화의 패턴도 도출해낼 수도 있다. 바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비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이다.

즉 거주민들은 빈곤으로 집약이 가능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쪽방촌을 선택하였지만 이들이 빈곤에 처하게 된 것은 개인의 책임 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 예컨대 외환 위기(거주민의 경우)나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여성 독거 노인의 경우) 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하여 볼 때 순수한 자발적 선택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택하게끔 추동했던 사회·환경적 맥락들이 비자발적인 선택을 표면상의 자발적 선택으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패턴은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의 삶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들이 생계를 위해 쪽방촌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나 내면에는 여성이기에 가지는 문제들, 이를 테면 보다 나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든 낮은 교육 수준, 불안한 결혼 지위와 자녀들을 키워내야 하는 엄마로서의 당위적인 기대 역할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거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역시 순수한 자발적 선택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국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자발적인 선택을 가장한 비자발적인 선택으로 쪽방촌에 유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쪽방촌 잔류의 단초

A: 전에 여기가 돈 무지하게 많이 번 데인데 싹 죽어버렸지.

Q: 아, 여기가 원래 돈이 많이 벌리던 곳이었구나.

A: 아이고. 말도 못해.

Q: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A: 아, 여기 한집에도 색시들이 한 삼십 명이 이십 명이 이 집에 친구 있을 때도 살아서 있을 때도 뭐 색시가 (한 방을 가리키며) 이집으로 내내 들어가 있었어. 전에 이 동네가 굉장했어.

Q: 굉장했구나.

A: 응. 그런데 인제는 세월이 흘러서 여기가 후지고, 이 동네가 이제 후져서 손님도 안 오고. 그래서 그러지 옛날에 여기는 굉장했어. 여기서 돈들을 많이 벌어가갖고 나간 사람들도 많지. 저 길 뜯기 전에 옛날이지. 그러니까는 오는 손님 만 해도 먹고 사는 거는 못 할 거 없었지...

먹고 살 만했던 것도 한 때, 결국 한푼 두푼 어렵게 모은 돈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인숙 건물을 매입하기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장성하는 자녀들로 인해 커지는 가계 부담, 그리고 이와 맞물린 경제의 불황과 신도심지 발전으로 인한 구도심지인 대전역의 쇠퇴 등으로 가세는 다시 조금씩 기울어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자 눈치 좋은 이들은 건물을 매매하여 조금이나마 ‘발을 빨리 뺐지만’, 중년을 바라보는 여성으로써 ‘여직 돈 들어가야 할 데는 태산인데’ 마땅히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없는 터라 차마 그럴 수도 없었다.

어제보다는 나아지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어느 샌가부터 심심찮게 들려오는 재개발 소식에 희망을 걸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자녀들을 여의는 때가 오면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시시때때로 필요한 크고 작은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라도 이고 얹은 건물을 속 시원히 해결해버릴 수만도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시간은 흘렀고, 노인이 된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 쪽방 관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할매도 이 집 할매도 이사 가고, 그래가 해주고 내가 꼭 해주고 이랬지만은 청소도 해주고 내가 이래갖고 이집 할머니 이사 가고. 돌아가시고 이젠 이 집이 내 앞으로 됐지. 그러니까 이 집 산지 한 이십 몇 년 됐어. 이십 몇 년 됐는데...(생략)...이층 있으니까 이층하고 전부 열 평인가 열 몇 평인가 밖에 안 돼. 열 평 오자인가 열한 평 오잔가 얹든 그쯤 될 거여. 되니까. 음, 뭐 올린다고 그래 싸고 하는데. 여 뒤에는 다 뜯겼어. 다 뜯겼는데도 맨 처음엔 저쪽에만 뜯기고 이쪽에는 뜯긴다 소리 안했는데 갑자기 여기를 막 뜯겨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받아 나갔어. 근데 여기서도 그래. 여 쪽에는 우리 집은 좀 낮고 뒤로는 더 낮아. 가격이 낮아. 이거 뜯기지도 안 할 것 같아.

한편, 가정에 금전적인 위기가 닥쳐 건물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자신의 건물은 처분하였으나 상시 필요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 등 타인 소유의 건물을 대신 관리하기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생계형 관리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방을 임대하여야 하는 업종의 특성 상 건물에 늘 상주하면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방 한 칸에 무료로 살면서 관리를 하게 된다¹⁹⁾. 즉 이들은 단칸 방에 세 들어 살면서 그에 대한 댓가로 주인이 일임한 일들, 예컨대 방청소, 빨래 등을 처리하고 월세를 받아 주인에게 입금해주는 일 등을 하는 전형적인 생계형 관리자가 된 것이다.

A: 어, 이제 여기 다 청소 해주고 손님 오면 방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힘들지. 사는 것이. 음, 세 사니까는 그건 뭐 주인이 이제 따로 있으니까는 내가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주고 생활이라도 해야되겠다 하니까는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19) 이는 후소절에서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Q: 음, 그럼 여기서는 지금 돈벌이는 되세요. 혹시 어르신?

A: 내 먹고 살고 그냥 용돈 얻어 쓰는 거지 뭐. 여기 전체 다 청소 해주고 다 하니까는. 그냥 그 저기 청소 해주고 그냥 빨래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하면 손님들이 이제 쫓 주고, 그 대신 내가 방에 공짜로 사니까.

그러나 전자의 유형은 운영자이고 후자의 유형은 관리인이기 때문에 언뜻 보아서는 사는 형편이 꽤 다를 것도 같으나 당면한 현실은 매한가지다. 쪽방촌 건너편에 깨끗하고 깔끔한 술집 등이 들어서면서 ‘아가씨 장사’²⁰⁾가 확장되어 찾아오던 성매매 손님은 확연히 줄었고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고락의 세월을 지내온 건물들은 노후하여 그 모양새가 썩 나빠져 그나마 ‘달세방’ 얻던 손님들의 발길마저 끊긴지 오래이므로 떠나할 것 없이 빈곤의 수렁으로 다시 빠져들게 된 것이다.

Q: 그러면 한 분 오실 때 마다 어느 정도(중개료).

A: 이천 원 정도.

Q: 아 그렇구나, 그럼 열 분 오셔도 이만 원 이네요.

A: 그렇지 이제 허허.

Q: 아이고 힘드네, 진짜

A: 힘들어요. 손님이 많으면 주인네도 편하고 우리도 좋은 디 요즘은 힘들어.

그럼. 월세지 뭐 이적지. 월세를 안 부으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죠. 여기는 벌써 내가 할머니 담배 공초 주워주고 심부름 해주고 그래야 돈을 줘. 장사가 잘 안되지만 아는 집이라 돈이 있으면 주고 안 되면 말고를 할 수가 있어. 지금 손님이 없어. 달방을 봐도 지금 하나야. 달방 하나.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랜 불경기에 딱히 돈이 될 만한 것을 모아 둘 수 없었던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는 심신이 쇠약한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도 힘에 부친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국가의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전자의 경우, 자신 소유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수급을 바랄 수 없고 후자의 경우, 자신 소유의 건물은 없으나 법적인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실제로는 자녀들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으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 어려운거는 말해야 할 수가 없어. 기가 막히지. 어려운거를 말씀을 드리려면 그냥, 수급자가 한

20) 예전의 성매매를 ‘색시 장사’로 불렀다면 최근의 성매매는 ‘아가씨 장사’와 ‘아줌마 장사’로 대별된다. 이유는 본 연구의 현장인 쪽방촌은 환경이 열악하고 손님층이 노인이거나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주로 나이든 아줌마들이 낮은 가격의 거래를 통해 성매매를 하지만 건너편은 다소 높은 가격으로 아가씨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어 다르게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삼, 사십만 원 인제 주면은 좀 풀려가지. 2종이라도 좀 해주면,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절대 없어요. 우리는 큰돈 바라지도 않고, 그런 병원비. 첫째는 2종으로라도 좀 해줬으면 좋는데, 해주면 병원 혜택도 좀 보고, 그래서 그러지 우리 1종은 안 바래요. 우리 같은 사람이 살기가 제일 힘들어.

이들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복지사각계층에 놓인 계층, 그대로의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곳을 결코 떠날 수가 없다. 쓸 데는 많지만 나올 곳 없는 하나 없는 돈을 다만 ‘몇 푼’이라도 벌어 ‘목구렁에 풀칠이라도’ 하고 아픈 몸을 위해 약이라도 타 먹으려면, 또한 어렵게 키워 호강 한 번 못 시켜본 ‘자식 새끼들한테 다 늙어서 폐 안 끼치려면’ 이 곳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살아가는 것이 곧 살아내는 날들의 연속일지라도 이 곳에서 버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살기 위해 들어온 이 지역이 전혀 ‘알도 못한’ 다양한 이익 집단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큰 일들²¹⁾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유입되던 시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쪽방촌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이들은 늙고 병든 노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물론 여유만 된다면 여생을 보내기에 편하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시세는 주변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에 ‘그 돈 들고 나가봐야 방 한 칸 얻기 어려워’ 혹은 ‘뜯기지도 않는’ ‘왓수같은 건물’이 있는 한 이 곳에 잔류할 수 밖에 없다. 이 곳이 빈곤의 벼랑이라면 이 곳을 떠나는 것은 곧 벼랑에서 떨어지는 일과도 같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찾아들어 온 과거의 이들의 삶터, 곧 지금의 쪽방촌은 이제는 이들에게 결코 나갈 수 없는, 잔류의 단초로 퇴색되어 버린 지 오래다.

2. 관계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에게서 발견된 두 번째 범주인 관계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빈곤한 삶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임대업으로 인해 단절된 가족, 친구, 친지와와의 관계, 둘째, 곤궁한 시대를 함께 겪어 온 이웃들과의 공고히 형성된 관계이다. 이에 전자에서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패턴을, 후자에서는 관계의 형성이라는 문화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21) 여기에서 연구자가 생각하는 큰 일이 의미하는 바는, 재개발이나 인근 시내 활성화, 신도심지 형성 등 정치적인 이익 관계와 맥이 닿아있는 일들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손님을 따라 흐르는 서비스업의 자본 이동 등 경제적인 이익 관계와도 맥이 닿아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다.

1) 관계 : ‘단절’

빈곤은 관계의 단절을 야기하는 촉매제가 되기 십상이다.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기 어려운 빈곤이라는 짐으로 하여금 이들은 가족, 친지 등과 소원한 관계가 되거나 원가족으로부터 유리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렵던 시절이었던 터라 이미 가정까지 이룬 이들이 친지나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아쉬운 소리도 한 두 번에 그쳐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이 이들을 버렸다기보다는 가족 모두가 헤쳐 살아 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이들 스스로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그 때는 그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거기서는 살 수가 없고, 형제간들은 영감님 형제간들은 5남매인데 거기서 다 살고 우리 시집도 그렇게 못 살았어. 그래서 의지할 데도 없고 돌볼 수도 없고, 부산서 생각하기를 열차를 타고서 우리 친정이라도 가야겠다. 그러고서 열차를 탔는데 대전서 내리니 1시에 내리더라고. 그래갖고 창문을 보고서 쳐다보니까 도저히 보따리 챙겨지고 친정을 못 들어가겠더라고, 창피해서. 그래서 대합실서 날을 새워 갖고 계룡공고를 쳐다보니 여기도 하꼬방(판자집)이 많구나 싫어가지고 여기서 죽겠어요. 할머니가 관리를 하는데 “할머니 우리 어디 갈 데도 없고 우리 이 창고 안에서 좀 살 수 없을까요?” 하니까 허락을 하길래, 가마니 깔고 사는데...

Q: 연락하면 뭐 할 거여. 다 자기들도 살기 힘든데 뭐 할 거여. 근께 연락이야 하지만은 소용 없어요. 부모도 돌아가시니까 더 멀어 지지만. 응. 친정은 부모 돌아가시면 멀어진다니 그 말이 꼭 맞네. 형제간도. 확실히 맞아.

A: 그럼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청하기가 어려우셨어요? 형제분들한테는.

Q: 안하죠. 난 숫제 안하죠. 내가 안 먹고 안 쓰면 된다 싶어서. 안 해요. 절대 난 진짜. 굶으면 굶었지 안 해. 내 성격이.

그러나 멀어져 가는 가족과의 관계에 애답아 하기에는 일단 먹고 사는 것이 급했다. 돈이 없어 아픈 딸에게 변변한 약 한번 먹이지 못해 어린 자녀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기도 하였고, 고만고만한 자녀들을 키워내려 악착같이 잡일을 하다 자신의 손가락 한 마디를 잃기도 하던 고된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인제 대전으로 오니 역전 와가지고 어떡해. 가만 앉아가지고 갈 곳도 없지 어떡해. 애들은 배가 고파 죽는다하지 딸내미 하나, 아들 하난데 딸은 그때 인제 병원, 너무 아파가 병원에 못 데리고 가고 하니까 애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역전에서 화장실 물 받아먹고 몇날 며칠을 한 삼일을 세도록 거 앉아있었어.

그런데 ‘치가 떨리는’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어렵사리 시작한 임대업은 또다른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색시 장사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장사하는 건물에서 함께 살림을 살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커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어도 모자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밤 장사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이들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하지만 장사를 그만둘 수는 없어 궁여지책으로 없는 살림에 사글세를 얻어 자녀들을 따로 두어 보기도 했지만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할 시기에 자녀들은 저희들끼리 자랄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부모, 자녀 간 깊은 골로 남았다. 또 어떤 이는 나중에 찾아오겠노라고 친지에게 맡겨놓은 채로 소식이 뜸해져 결국 관계가 끊어지기도 했다.

Q: 어르신 출퇴근하셨구나 여기로.

A: 이제 내가 사글세로 얻어서 지들 밥해놓고, 빨래해주고 그때 어렸을 때는 그러고 인제 또 나와서 벌고, 또 아침에 가서 빨래하고 밥해주고 그렇게 하고 와서 또 쪼금 벌면 또 아침. 출퇴근하면 또 그렇게 가서 하고 오고 그랬지. 사글세 얻어서 인제. 아들을 이리 안 데려오고. 나도 사글세로 이렇게 나 방한 칸 얻어갖고 있으면 손님을 넣었으면은 어떻게 아들은 어디로 데리고 가. 그런 거 얻을 형편이 못되니까 아들은 다른데다 놔두고. 그냥 왔다갔다 이렇게 했지.

Q: 아, 그렇게 하시고. 그냥 방하나 얻어서 자녀분들 두시고. 그럼 자녀분들은 (색시 장사 하는 것을) 모르셨어요?

A: 아니. 이젠 이 동네 있는 것은 알았지. 그래도 아들은 데리고 와 살지는 않았지.

A: 그렇게 하고는 그때는 쌀도 한 대접 뺏아서 먹고. 아그들도 내가 키우다 보냈지. 못하니까. 그러고 또 그럭저럭. 새끼가 있는데 그럭저럭 또 어찌겠어. 안 죽겠어. 그런데 인제는 막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소원한 거지. 아그들한테 연락 잘 안하지.

Q: 언제부터 연락을 안 하세요. 그러면?

A: 보호자로 해 났으니까. 죽으면 송장 끌어다 치를 테지. 남매.

Q: 이제 연락도 잘 안하시니까.

A: 응. 그렇게 사는 거여. 그 이젠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 끝 맞은 거예요. 인제 뭐 내가 이래 갖고 뭐 자식. 그건 아니지. 그건 내가 염치가 없고. 저그 큰 집 있으니까. 큰 집에서 다 앵기는 거고. 난 어릴 때 다 글로 앵긴거고.

Q: 아, 큰집에 주고 오셨어요?

A: 응. 저 큰엄마, 큰아버지. 호적이 다 걸로 가있고. 나는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법적으로나, 이 사회로나 내가 돈 받아써야할 상관이 없지.

뿐만 아니다. 어렵게 거두기는 했지만 빠듯한 살림 탓에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공부를 시키지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못했다. 이는 부모의 마음에는 못내 한으로 남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에게도 또 다른 모습의 한으로 자리 잡았다. 여

성이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빈곤한 가정환경 탓에 많이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유 모를 스트레스로 정신병을 얻기도 하였다.

그것들 어떻게 해서 먹이고, 어떻게 해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가르치지는 많이 못했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들 저거 결혼도 서른일곱인데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카드빚 때문에...저도 안 되니까. 그 인쇄소에 돈을 얼마 줘도 많이 줘도 안 줘요. 인쇄소 돈 얼마 안주는데 그 적은 돈 받아갖고 저도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카드빚도 있고 그래서 엄마 미안하다고 만날 하는 소리가 그렇지만은. 괜찮다...(생략)...딸은 따로 있는데요. 정신 불면증(정신 분열증으로 보임)인가 그거여. 그래갖고 한 사년동안을 얼마나 속을 썩이고 돌아다니고. 밤인지 낮인지 비오든지 막 타고 돌아다니고. 사년 올 1월 달까지 그랬어요. 올 1월 달까지. 11월 달에 칼을 들고 날 죽인다고 그거를 가슴에 대고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칼로 방바닥을 찢고. 아휴, 죽을 뻔 했어. 죽을 뻔했어. 그래갖고 뭐를 못하잖아요. 그런게 저라고 있는 거여. 그래서 내가 저도 돈 못 버니까 내가 밥이라도 먹여야지.

혼자 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아등바등 살았으나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원하는 모습대로 일구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녀들이 제 한 몸, 제 식구들 건사하면서 사는 것만도 대견하고 기특할 뿐이다. 남들보다 고생했지만 남들만큼 잘 키워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득하며 이제 와서 늙어가는 이들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였다. 가끔 짬이 날 때, 명절 때 찾아와주면 그 것만으로도 고마울 뿐이다.

이들의 집에는 하나같이 빛바랜 자녀의 사진, 손자녀의 백일 사진이나 돌 사진들이 벽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연구자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진 먼저 소개하기 바빴다. 누군가에게 내보이고 싶은 가장 크고 유일한 자랑인 듯 했다. 그런데 소상히 자랑을 늘어놓다가도 자녀들과의 관계를 물어보면 얼버무리거나 관계가 소원한 지금의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지금의 시대가 청장년층이 살아가기에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절히 설명했다.

부모가 뭐 해준 게 없어서 손을 벌릴래야 벌릴 수가 없어요. 말단 회사 다니면서 먹고 사는 거 고로운데 그거 몇 푼 타갖고 그 애새끼들하고 무엇을 먹고 살겠어. 우리가 손을 벌리지를 않아. 부담스러워서. 벌려봐야 소용도 없고.

Q: 어르신은 지금 자녀분이?

A: 있어요. 한 명. 둘이 산다니까, 즈그들끼리 살어. 안 만나지지. 엄마 신세 안 지려고, 뭐 손을 벌릴 수도 없지만. 왜냐면 어매가 뭇을 줄 수가 있어. 집이라도 사 줬어야 뭇을 하지. 딱하기만 해. 서로 보면. 그러니까 안 보고 사는 게 나야.

물론 자녀와의 관계가 돈독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일생을 ‘빠 빠지게 고생한 어미’의 노곤한 삶을 마음 깊이 이해한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인이 된 지금에도 이들이 후미진 쪽방촌에 남아 장삿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만은 이해하지 못해 만나면 가끔씩 다툼이 일기도 한다.

A: 응. 고 무렵에. 고 무렵에 조금 하다가. 애들이 보기가.

Q: 아, 애들 보기 좀 그래서?

A: 응. 여기가 뜯고서는 다리를 놓고, 밤장사가 좀 됐어. 그러고 애들이 크고 그러니까. 머슴아들도 못하게 하더라고. 첫째는 우리 막내딸이 못하게 하데.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살자고.

(딸은 밤 장사하는 것을) 싫어하지 안 좋아하지. 그러고 여기 있지도 안하고. 안했지. 안하고 어디가면 문 잠가 놓고 가고. (옛날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있는데 안 데리고 다녔지. (싫다는 소리를) 왜 안 해. 그렇게 하지. 하지 말라하고.

하지만 이들은 근근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면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고 ‘배운 게 도둑질’이기 때문에 오늘도 쪽방촌을 떠나지 못한다.

2) 관계 : ‘형성’

쪽방촌 주변 역 근처에는 남성들이, 골목 안에는 여성들이 한 데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다. 어울려있는 남성들은 무료 급식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대개 무시(無時)로 술을 먹으면서 욕설이 섞인 고성으로 대화를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이들이지만 쪽방에 거주하는 남성들 중 많은 수가 무료 급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그리 낯설지는 않다.

이러한 무리를 뒤로 하고 좁은 골목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숙 앞에 앓은뱅이 의자나 돌로 된 턱에 대충 걸터앉은 반백(半白)의 여성 노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응시하다가 손님인 것을 알아채면 여인숙으로 안내하여 들어간다. 잠시 방을 내어주고 다시 나와 하릴없이 슬슬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건물 어귀를 청소하거나 건물 사이에 길게 늘어져 있는 빨랫줄에 빨래를 널기도 한다. 그러다 식사 때가 되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소박한 식사를 하는데, 한겨울이 아니고서는 방문을 열어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식사 중에 문 앞을 지나가는 친한 이들이 있으면 자연스레 ‘밥 먹고 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관리인 중 수급자는 드물기 때문에 쪽방촌에 거주한다고 해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은 지원의 대상은 아니지만 뻔한 형

편 탓에 쪽방상담소나 교회 등에서 밥과 반찬을 얻어다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
 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친한 무리들 중 누군가가 반찬과 국을 챙겨가지고 나와 4-5명의 노인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어린 노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을 꼭 챙겨서 같이 식사를 한다. 모두가 없는 살림이지만 서로를 살
 뜰히 챙기는 것은 오랜 습관처럼 보인다. 모르는 이들에게는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의 형편없는
 식사 풍경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이러한 일상의 편린들이 팍팍한 삶을 재미로 채색하
 는 의미있는 것이다.

모자라. 딱 주고 안 그러면 적을 때는 더 적을 때도. 학교서 밥 남는 거 가져오니까. 학교음식. 고등학
 교 뭐 어디에서 밥을 가져오고. 거 학교 새나루 교회 있어. 거기서 또 학교서 가져와서 저녁밥 주고 그
 러지. 그럼 우리는 쪽방에서 밥 가져와가지고 우리 갈라주고 그래. 거기는 교회서 새나루 교회에서는
 그 자리에서 밥을 줘. 그럼 우리는 거기서 가서 퍼주면 타 오는 거야.

Q: 어르신 그러면 저기 분들하고 밥도 같이 드시고,

A: 같이 먹지. 낮에는 오면 뭐 없으면 여기까지 부르러와.

Q: 아, 부르러 오세요? 그래서 항상 같이 드세요 거의?

A: 항상은 아니지만. 인제 그 보살님이 밥 해갖고 나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맛있는 것도 주고,
 된장국 해서 없으니까 된장국 해서 뜨끈뜨끈 하게 지져갖고 갖고 나와서 먹자고 낮에. 인제 밥 얻어
 와서 같이들 먹고 그래. 이 동네는 저 바깥에 밥 타서 줬는데 여기 잘 먹잖아. 저 오면.

Q: 정이 넘치는구나.

A: 그래서 막 밥 같은 것도 인제 쪽방에서 얻어서 같이 얻어다가 같이 먹고, 된장도 끓여갖고 나
 가고, 김치도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나는 안하니까 내가 밥이나 얻어 온 거 갖고 나가고. 그래요. 그런
 게 해서 살았어요.

그럼 저 앉아서 그렇게 먹고 재밌어. 응. 그러고 인자 밥을 안 할 때는 자기 밥 한 공기씩 갖고 나와서
 여럿이 앉아서 먹으면 재밌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만날 재밌게. 재밌게는 살아요.

그런데 일 년을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을
 훌쩍 넘은 시간동안 길에 나와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것은 여간 지루한 일이 아닌 데다가 차가
 운 땅바닥에 쇠약해진 몸을 기대고 있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젊었을 때나
 늙어서나 건강 돌볼 틈 없이 일터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기도 하지만 제법 ‘여러 폰
 깨지는’ 병원도 매일 갈 수도 없는 일이다. 근처 홈리스지원센터나 희망진료소 등과 같은 기관
 에서 무료 진료나 물리 치료 등을 받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차도
 는 없고 오히려 병을 키우는 형국이다. 그러다보니 큰 병으로 도지기도 하고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 봉착하기도 한다.

저녁에는 또 열시에 들어와. 밤 열시에. 추우나 뜨거우나 비가 오나 눈이오나 불 피고, 그리고 또 열시에 들어오면 씻고 또 자는 거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렇게 살아. 인간이.

(항상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살은 썸. 소변이 안 빠져. 소변이 여름에도 하루 종일 있어야 대접에 하나로 박엔 안 빠져. 밤에도 한 번도 안 봐요. 그런게 이게 다 물이 차 있는거여. 이게. 먹는 걸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게 어지러워. 항상 어지러워 죽겠어. 어지러워서 막 내 몸이 땅으로 착 가라 앉는 거 같아.

어. 그 저 한방 저거 하는데 십년도 더 됐어요. 우리 거기 가서 그 선생님 너무 고맙고. 또 그 저기 저 무료 진료소 있어. 저기 건너가면 거기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오지. 인제 파스 뭐 바르는 약, 먹는 약, 물리 치료 그런 거 거기서 또 도움 받고. 그래 그래 하루 지내는 거여.

그렇게 아픈 몸을 위로해주는 것도,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는 처지를 이해하는 것도, 아픈 이를 위해 대신 불 일을 봐 주는 것도 어울려 사는 이들 뿐이다. 그렇게 가족이나 자녀, 친지들과 떨어진 공허한 관계의 틈을 서로가 형성한 관계로 메우고 산 지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 긴급한 상황이 왕왕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목숨을 구한 것도 함께 사는 이들이었다.

한번은 죽어서 까무러쳐 버려서 저 여인숙이 병원에까지 데려다 줬어. 그리고 뭐 그냥 다리 다쳐서 내가 전화해서 오고. 그러지 뭐. 아, 급하면 전화들 다 해주지.

이들에게 서로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많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서로의 존재로 인해 세상 유일의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이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부르든-쪽방촌이든 판자촌이든-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된 것이다.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무거운 짐과 같은 가족 때문에 마음 붙일 곳 없이 부유하는 삶을 살던 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착한 곳이 바로 이 곳이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였다.

재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다리를 중심으로 뒷동네는 벌써 ‘뜯겼다.’ 현재 수중에 가진 돈으로는 다른 지역에 변변한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사 비용이나 배상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한 권으로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도 크다.

마음적으로다는 내가 이제는 이 동네 이제 사람들 다 이제 알고 그러니까는 다 같이 늙어가면서 서로 말 한마디라도 도움을 주고 하니까는 그 고마움을 어찌 다 표현해.

A: 첫째는 어디가 살아도 이웃애가 좋아야 되잖아. 물론 다 제 하기 달렸지만은 그래도 다 여긴 사람들끼리 살기 때문에 다 의지가 돼.

Q: 음. 남들이 여기보고 쪽방촌 막 이러잖아요.

A: 쪽방촌이라해도 사람들이 안 그래. 다 인정들 있고.

Q: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도 여기서 사시는 우리 어르신한테는 굉장히 좋은 곳. 그렇죠?

A: 응. 좋은 곳이고. 이웃사람들 만약에 판사, 검사집이면 뭐해 사람 차별하고 다 마 별것도 아니지. 여기는 안 그래. 참 사람들이 따뜻하고 인정이 넘쳐 모르는 거 있으면 자기가 알면 끝까지 같이 해주고

이 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책에 꼭 내 달라’고 여러 번 강조한 이도 있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이유는 다름 아닌 정 붙이고 사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에 있었다. 재개발로 인해 다 늙은 나이에 이 관계마저 끊고 떠나야 한다면 어쩔까 벌써부터 염려스럽다. 그래서 ‘혈육보다 진한’ 관계로 엮어진 이 지역을 도저히 떠날 수 없다.

응.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만은 대부분에 보면 이 가정 동네. 가정 저쪽. 여기서 툭 떨어져가지고 저 가양동이나 뭐 석교동이나 저 저기 뭐 은행동 절로나 이 동네 이름을 대면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본단 말야. 아가씨 동네 가도 사람들이 엄청 거칠게 본다고.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인정이 많이 넘치고 이렇게 단합해가지고 살고. 어려운 사람은 쓰러지는 사람 그 사람 쓰러지게 내버려두질 안 해 그래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 가르쳐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단팔 한쪽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그 사람일 봐줄라하지 그냥 여사로 보는 동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얼마나 좋은 동네여. 그리고 그 바람에 나도 여기서 이 몸을 담고 살잖아.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런 동네여. 그런 거는 책에도 내고. 다 내도 돼.

Q: 그럼 어르신 왜 여기서 이사 안가세요? 여기 재개발 되는 거 기다리시느라고?

A: 하지도 안한다는데 왜 이렇게 고쳐주는가는, 시에서.

(재개발 원하지 않는다는데 시에서 왜 고친다고 하느냐)

Q: 아, 어르신 여기가 너무 좋으시구나.

A: 너들은 싫어도 나는 좋아. 동네사람이 얼마나 날 챙기잖아. 자매처럼 잘 지내는데 굳이 이 사 갈 필요 없지.

Q: 뜯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A: 뜯기면 뭐 그래도 여기 가까운데 살아야지. 멀리 안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지내고.

여기가 좋지. 여 동네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가 제일 나으니까 여기 있지. 그렇지. 사람이 인제 거기(타 지역) 가면 인제 방에만 있을 테지. 그렇지...뭐 시방 여기 뜯기면 어쩌나...

3. 이방인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에게서 발견된 세 번째 범주인 이방인도 역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체자로서 맞이하는 이방인, 둘째, 쪽방촌을 벗어난 구역에서 고립된 타자로서의 이방인이 된 자신이다. 이에 전자에서는 ‘경계’와 ‘어울림’라는 패턴을, 후자에서는 ‘경계’와 ‘소외’라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계(警戒)와 어울림

쪽방촌은 이방인들이 쉬이 드나드는 곳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동의 쪽방촌은 여관, 여인숙이 즐비해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눈에 익은 주민이 아니라면 모두 이방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손님과 손님이 아닌 사람을 ‘귀신같이’ 잘 알아본다. 그리고 손님이 아닌 사람은 곧 경계의 대상이 된다. 이유는 전술하였듯 색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니와 쪽방촌으로 명명된 이후부터 관련 기관의 수많은 공무원과 민간 기관 실무자들, 연구자들까지 ‘뻔질나게도 드나들었던 탓’이기도 하다.

연구자가 처음 그 곳을 방문하였을 때(12년 2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장사를 위해 거리에 나와 삼삼오오 짝을 지어있던 그들은 낯선 연구자를 보자,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등을 물어왔다. 도움을 드리고자 조사를 나왔다고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여도 경계는 좀체 누그러지지 않아 쪽방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기²²⁾는 도통 쉽지가 않았다. ‘도움은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거나 ‘만날 조사만 해가고 지금까지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통박도 여러 차례였고, ‘그러니 다 필요 없고 댄 데나 가봐라’고 손사래로 연구자를 몰아내기도 하였다.

오면 뭘 해.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나와야 소용없어. 시청장이 나와도. 우리한테 국물도 없고 뭐 냄새도 없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사람들.

그러기를 몇 날이 지나니 몰아내도 자꾸 찾아오는 연구자에 대한 연민, 즉 ‘도대체 뭐를 하

22) 전술하였듯, 처음 연구자가 쪽방에 방문한 것은 쪽방 거주민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건물 앞에 상주하고 있는 관리인들을 거처거나 안내를 받아 쪽방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었다.

려고, 뭐 주워 먹을 것이 있어서 그 겨울 날 그렇게 돌아다닐까 보기에 맘이 째해서' 경계의 끈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였다²³⁾. 경계의 끈이 풀렸다고 인지하게 된 계기는 조사를 위한 안내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였고 이후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부터는 연구자에게 필요한, 보다 많은 정보를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면이 익기 시작한 어느 날인가 부터는 노인 몇몇이 둘러앉은 집단에 자연스럽게 낄 수 있었고 날씨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주고받을 수 있었으며 연구를 진행하기에 위험한 요소와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소상히 알려주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식사 때를 놓친 연구자에게 라면을 끓여주거나 커피나 음료수를 챙겨주는 등 살뜰히 챙겨주기도 했고 지나가다 눈이 마주치면 '어여 들어와 밥 한술 뜨고 가라' 매우 자연스러운 호의를 베풀기도 하였으며 되려 연구자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도 했다.

박가스 하나 마셔. 하나 마셔...(생략) 너무 찰라나? 너무 차면 안 좋지? 그래도 마셔야지, 입 침 마르잖아. 찬 거 먹으면 안 돼. 같이 목자. 언능 먹어.

이렇듯 어울릴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굳이 상세히 묻지 않아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았고 경계하는 동안 쉬이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장사에 관한 이야기도 편하게 오고갔다. 뿐만 아니라 면접을 하거나 잠시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손님이라도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님을 안내하고 다시 들어와 이야기를 계속하기도 하였다²⁴⁾. 이제는 이들과 연구자가, 함께 어울림을 통해 누가 보아도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2) 경계(境界)와 소외

그들이 거주하는 좁은 쪽방촌은 대부분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급자족의 지역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 그들은 특정 병원이 진료비의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같은 병원을 이용하고 같은 급식소에서 밥을 타다 식사를 해결한다. 이는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유사한 패턴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나 특기할 점은 자원의 활용이 모두 거주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23) 물론 본문에 상기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자 자체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풀기 시작하였고, 특히 연구자를 통해 본인들과 관련된 건물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경계가 풀린 것으로 짐작된다.

24) 현행상 불법인 성매매를 연구자가 방조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의 제기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연구자가 매우 고심한 부분이었지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연구 현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합법성에 대해 주민들과 본격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본 연구는 성매매 자체가 그 합법성 등을 고찰하고자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부터 논외에 두었다.

다. 즉 특별한 경우, 예컨대 종합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나 같은 절에 다니는 사람끼리 멀리 소풍을 다녀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살고 있는 거주지 근처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대부분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Q: 예전에 저희가 00학교 했을 때 왜 안오셨어요?

A: 에이, 가지지를 않아. 가지지를. 가잡지도 않고, 뭐 그랬어. 솔직한 마음에서는.

Q: 가잡잖아요? 길 하나만 건너면 되니깐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데요.

A: 마음적으로 가잡지가 없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잘 그래지지가 않는다니깐.

이러한 양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많은 이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특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빈곤하게 살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을 공유할 수 없는 ‘건너 편 지역’의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이유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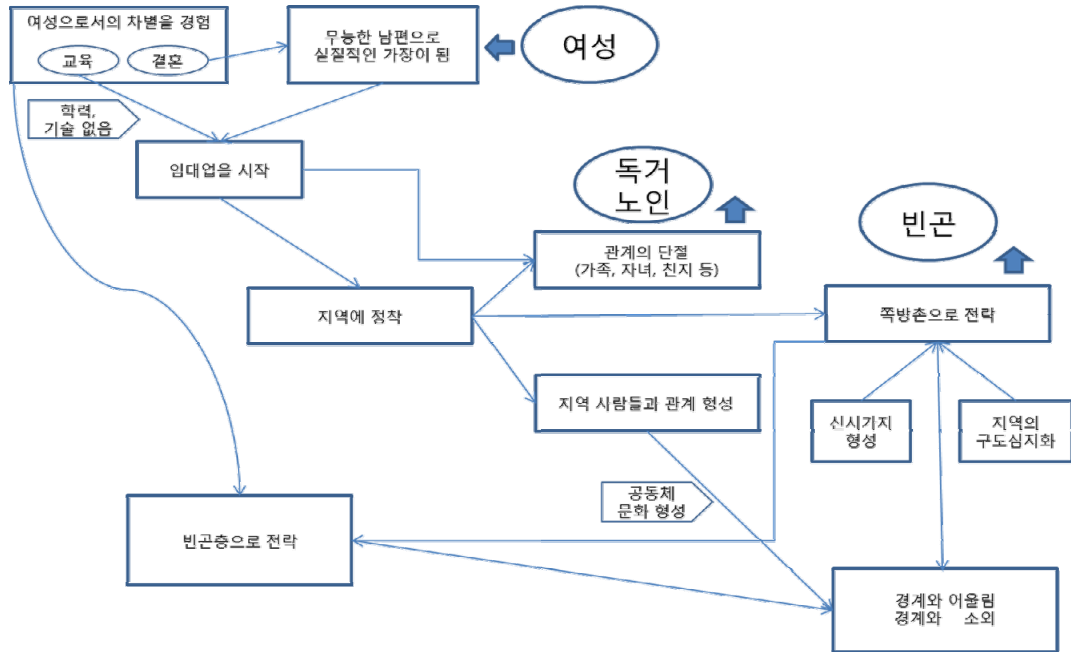
그런 거 없어. 즐거운 것도, 행복한 것도 없고, 남 같은 세상을 못 살아 보니까, 돈 같은 것도 써보도 못하고 옷 같은 것도 못 입어보고. 옷 하나를 못 입어 봤으니까. 10만원 짜리가 뭐여. 그런 거를 눈 감고 살아요. 저 쪽으로 나가면 메이커 옷에 신발 신은 사람 오면 딱 눈을 감아버려요. 쳐다를 안 봐요. 그게 좀 서글프더만.

그런게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사는 거요. 그런게 남 마냥 좀 저기하게는 못살죠. 항상 옷 하나를 팬티 하나를 못 사 입고. 남 이런 거 주면 입고. 옷 다 주워서 입어요. 세탁소 같은데 헌옷 나오면 주고. 어디 쪽방이 같은데도 갖다 입고.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 나왔어요. 그런게 어디를 못나가요. 넘 보기 썩피스러워서...

결국 경계(境界) 지역을 넘어서게 되면 스스로 소외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낯선 이방인이 오면 경계(警戒)하던 주체가 경계(境界)외 지역에서는 고립된 타자로서의 이방인으로 탈바꿈되고 결국은 소외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는 빈곤하지 않은 자가 이들에게 씌우는 주홍빛 낙인의 굴레가 아니라 빈곤하기 때문에 스스로들에게 씌우는 울무인 것이다. 즉 넓디 넓은 경계(境界) 밖 세상에서 자신들을 그렇게 소외시키는 주체는 다름 아닌, 자신들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들은 경계(境界) 내에 들어온 이방인을 -어울리기 전까지²⁵⁾- 경계(警戒)하여 소외시키는 주체이자 경계 밖에 나가서는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주체인 것이다.

25) 연구자가 직접 경험해보았지만 이들의 경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웃끼리 정을 나누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들은 이방인도 얼마 가지 않아 곧 받아들이고 어울리며 정을 나눈다.

〈그림 10-1〉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 노인의 쪽방촌 거주 경험의 구조



제5장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쪽방촌 거주 경험과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문화기술지의 방법을 통해 이들의 삶을 살펴보았다.

외환 위기 이후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민에게 관심이 주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와 조사의 관심은 주로 쪽방촌 남성 거주민의 문제와 빈곤으로 인한 주거 취약의 문제에 집중되면서 쪽방촌에 거주하는 또 하나의 취약 계층인 여성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은 전무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 노인들이 쪽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 형편이 쪽방 거주민의 생활 형편과 다를 것으로 보이기 쉬우나 실제적으로는 이들 역시 빈곤의 극한에 몰려있는 형편에 처해 있는 데다가 고령의 독거노인이 가질 수 밖에 없는 고유한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어 이들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은 어떠한 계기로 쪽방촌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쪽방촌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쪽방촌 거주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했다.

연구 결과, 이들은 생계를 위해 쪽방촌—그 당시에는 쪽방촌으로 불리우지 않았지만—에 유입되어 임대업을 시작하였고 그 일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들이 임대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내면에는 여성이라는 차별적 지위에 따른 요소, 이를 테면 낮은 교육 수준, 기술과 경력의 부족, 사실상의 결혼 해체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이 임대업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자 선택한 지역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 인근에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쇠퇴되어 이제는 쪽방촌이 되어버렸다. 이 상황에서 더 나은 곳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상실한 관리 여성 독거노인들은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이곳에 잔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들의 쪽방촌 거주 경험에는 단신 장년이나 남성들이 최후의 보루로 쪽방촌을 선택하게 되는 것(허소영, 2009; 연합뉴스, 2012 등)과는 다른 맥락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인지하고 느끼는 쪽방촌의 거주 경험은 다른 대상, 이를 테면 빈곤의 극한으로 떠밀려 온 남성이나 단신 장년들이 인근 지역 거주민들끼리 관계를 형성하기는 하지만 깨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권지성, 2008)과 사뭇 달랐는데, 이들은 쪽방촌에서 자신들끼리 공고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 관계망을 세상 어디에도 건줄 수 없는 따듯한 공동체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망은 가족·자녀·친지 사이에 깨지거나 요원해진 관계의 틈을 메우고 있었으며

빈곤한 노년의 삶을 위로해주는 가장 큰 위안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이 관계를 맺는 양상은 일반 여성 노인들의 그것과 유사한데, 여성들은 친구관계에서 더 넓은 관계망을 유지하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이득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Krause & Keith, 1989; Krause & Shaw, 2002). 반면 연구를 통해 드러난 이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은 일상생활상의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자녀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되어 온(송다영 외, 2011) 여성 독거노인의 문화적 특성과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자신들끼리 비공식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지지 자원, 예컨대 쪽방상담소나 홈리스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은 그 지역을 타지역과 구분하는 경계(境界)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들 스스로를 다른 세상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외의 현상은 이들 스스로가 빈곤에서 연유한 계층적 차이를 인식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했던 연구 대상인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노인에까지 연구 영역을 넓혀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관점에서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시도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경험적·문화적 의미의 발견점들은 향후 이들 여성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활용 가능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정책적·실천적·학문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들의 생계를 위해 이들 중 근로가 가능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행법 상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실정이므로 생계를 위해 적절한 일자리가 확보되고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끈끈한 관계망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개인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체 내에서 모두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로 마을 내 공동 작업장의 마련을 들 수 있다. 지금은 낙후되었으나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큰 역과 근접해있기 때문에 공동 작업장을 통해 인근 지역 자체를 특화한다면 이들의 생계 해결 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참여는 노인들의 무역할(roleless)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권치영 외, 2009)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의 감소 효과²⁶⁾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사례 관리 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쪽방 지역의 사례 관리는 수급권자나 탈노숙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이들과 같은 처지의 노인에게는 간헐적인 도움만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지성(2008)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계층에 속하는 독거노인과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자들의 경우를 사례 관리 사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노인은 전자와 후자 모두에 속하는 취약 계층이므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의 쪽방 지역은 구청과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거주민을 관리하고 있고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사례를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지역이 보다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 형성되어 있는 비공식적 지원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공식적인 사례 관리 사업과 함께 비공식적인 관계망의 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들의 생활 환경을 넓혀 보다 편리하고 나은 여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같이 쪽방촌에 거주하는 다양한 취약 계층을 발굴하여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적 접근은 빈곤과 질병, 주거 취약이라는 다양한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적합한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다양한 심리·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문화기술지를 통해 대전 지역에서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노인들의 삶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므로 다른 지역,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26) 물론 이들이 일자리를 갖는다고 해서 성매매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지성(2008). 쪽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60(4): 131-156.
- 권지성(2011). 해외 한국아동 입양공동체에 대한 문화기술지: 호주 퀸즐랜드주 AKFG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3:291-318.
- 권치영·김선웅·임중철·이홍직(2009). 일자리 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2):427-443.
- 김선미(2011). 쪽방 등 저렴거처에 대한 지역재생적 단초. 제2회 주거복지컨퍼런스 자료집. 473-510.
- 김영화·권신영·최영진(2011).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서울: 양서원.
- 김효진(2009).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의 삶과 도시빈민공간으로서의 기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병일·윤경아(2004).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다운샘.
- 박성용(2002). 질적 연구방법: 한국 질적 연구센터 질적 연구 워크샵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 송다영·김미주·최희경·장수정(2011). 새로쓰는 여성복지론 쟁점과 실천. 서울: 양서원.
- 송민경(2005). 쪽방노인 생활실태에 따른 정책 제언 연구: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안기덕(2012).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생애사 연구. 한국노년학. 32(2):447-465.
- 연합뉴스(2012). <2012 겨울, 쪽방>
- 이소정(2006). 판자촌에서 쪽방까지: 우리나라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9:167-208.
- 이준호(2000). 서울시 쪽방지역의 존속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옥(2003). 질적 간호연구 방법 : 문화기술지. 간호학 탐구. 12(1): 97-117.
- 한국도시연구소(2000). 쪽방지역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정책개발. 한국도시연구소.
- 허소영(2009). 쪽방지역에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현미라·권지성·장혜경·이민영·우아영(2010).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Orlando: FL., Holt, Rinehart & Winston.
- Krause, N. & Keith, V. (1989).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 Sex Role, 21:609-628.
- Krause, N. & Shaw, B. A. (2002). Welfare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in late life. Psychology and Aging, 17:260-270.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2-3]

대전 쪽방밀집지역거주자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발 행 일 : 2012년 12월

발 행 인 : 김 화 중

발 행 처 : 대전복지재단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 (우: 301-722)

전 화 : 042-331-8909

팩 스 : 042-331-8924

홈페이지 : <http://www.dwf.kr>

ISBN 978-89-98568-02-3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에 있습니다.
